금주의 법구-〈대반열반경〉
공연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겉모습만 치장하지도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26일)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법당 휠체어 문턱보다 불자 마음 문턱 낮추자

'250만 장애인 시대, 불교는' ① 불교 장애 인식 현주소

노덕현 · 박진형 기자

4월 5일 한국불교 대표사찰인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선 양만석 혜광맹인불자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수십 번도 넘게 찾았던 사찰이건만, 이제야 마음 편하게 사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이날은 조계사 일주문에 조계사 법당과 시설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시각장애인용 안내 '촉지도'가 세워진 날이었다.

양만석 회장은 "작은 안내도보다, 불교계가 우리 장애인 불자들에게 관심을, 신경을 써주는 것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교계가 휠체어 통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조계사와 같이 사찰을 안내하거나 함께 법회를 보고, 더 나아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구 250만 시대, 불자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을 위해 불교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넘어 신행기반 마련, 인식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장애인 시설 현황

휠체어 진입로 있는 사찰	15곳
장애인 화장실 있는 사찰	17곳
장애인 법회나 장애인 모임 있는 사찰	1곳

장애인 불자, 사찰가도
모임, 안내 없어 '쓸쓸'
사찰 신행기반 단 1곳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불교계 신행활동 미약
"신심은 삶의 원동력"

사회 활동 늘어나는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신 통계인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251만명으로 1997년 42만명, 2004년 161만명 등 매년 증가했다.

미영순 전국저시력인연합회 회장은 "등록 장애인의 폭발적인 증가는 장애 사실을 스스럼없이 밝히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2015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한 39.0%와 36.0%를 기록하는 등 사회 전반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활동 증가에도 불교계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최근 장애인 불자 시집과 콘서트 등을 개최한 '보리수아래'의 최명숙 회장은 "장애인 불자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사찰 순례하기보다 오래도록 편하게 신행활동을 이어가길 원한다. 삶에서 신심은 또 다른 원동력이지만 이 바탕이 되는 불교계 기반은 미약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모임 있는 주요사찰 '1곳'

그렇다면 불교계에서는 얼마나 장애인들의 활동기반이 있을까. 본지가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등 주요사찰 35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모임이나 법회가 진행되는 곳은 원심회가 있는 조계사 단 1곳에 불과했다. 복지법인을 통해 장애인센터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은 수덕사, 불국사, 고운사 등 많았지만 정작 사찰 내 신행모임이 있는 곳은 극소수였다. 반면 휠체어 통로를 비롯해 장애인 화장실 등 기초적인 인프라는 문화재 사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월정사, 수덕사 등 주요사찰에 대부분 갖춰져 있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불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 불자들도 부처님 제자로 함께 신행 활동하는 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했으면 한다. 대중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휠체어가 넘기 힘든 법당의 문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조계사가 4월 14일 장애인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는 장애인불자 대법회를 진행하고 정기법회로 2019년부터 매월 1회 장애인 정기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 4.3 희생 영가여 왕생극락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해원상생의 법고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계종은 4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3 피해자 스님 16명을 비롯한 희생자 3만여 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푸르던 제주도를 빨갛게 물들였던 4월 3일의 희생자들은 70년이 지나서야 위로받을 수 있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가들이 이제라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란다. 글= 박진형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본격화

문화재청,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 신청서 제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燃燈會)'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종목으로 '연등회'를 선정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업은 본격화됐다.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 사월초파일에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인 것이 오늘날 연등회로 계승됐다.



〈삼국사기〉에 첫 기록 확인돼
1천여 년 이어져온 불교축제
연속성 강점… "등재에 최선"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등회는 중지됐으나,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호기놀이 등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근대에 들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강연회, 음악회 등 현대적인 문화행사의 형식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렸지만, 해방과 6.25 전쟁 이후부터는 제등행렬이 다시 이뤄지며 연등회 복원이 이뤄졌다. 이후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 어울림마당(연등법회) ·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연등회 행사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등회의 전승과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한국불교의 고유 문화제인 연등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역사와 환경에 대응해 재창조되고 공동체에 정체성,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유산 개념과도 잘 맞다"고 평가하며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연등회 보존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등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등회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에 개최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불교 고유 의례인 영산재를 포함해 총 19건이다. 신성민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4.3 비극 70년… 화해와 상생으로 '치유'

제주4.3 관련 국가 · 불교계 추념행사 잇달아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피와 비명소리로 얼룩진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달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불교계서도 추도 물결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를 찾았고, 광화문에선 불교계 영산재가 엄수됐다.

1948년부터 70년을 가로지른 2018년 4월 3일,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상생 · 평화 · 인권으로 나아가는 4.3사건 추념식과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이 방문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2006년 노무현 前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는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조계종이 함께 '제주4.3 70주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재'를 봉행했다.

제주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한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4.3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4.3희생자, 불교가 어루만지다

4.3사건은 미확인 희생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명 피해만 2만5000~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불교계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때 스님 16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사찰 37곳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18곳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스님들은 사찰 경내에서 총살을 당했고, 수장이나 고문에 의해 죽은 스님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 문화재급 불

4월 3일 설정 스님 제주 방문
같은 날 광화문서 추모 영산재
교구본사선 추모 현수막 · 기도
"제주도민에게 평온함 오기를"

상과 탱화는 이때 거의 소실됐다. 이웃종교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은 4월 3일 광화문서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극락왕생 발원의식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세워진 분향소 무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 등 스님 6명의 집전으로 1시간가량 치러졌다. 이날 영산재에는 직접 제주도를 찾은 설정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참석했다.

설정 스님은 정우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제주의 아픔은 깊은 고통을 오랜 세월 시대와 사회에 남겨놓았다. 먼저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국민적 화해와 상생,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화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영산재는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일 뿐 아니라 제주 4.3의 아픔으로 숨죽여 살아온 제주도민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돼 평온함이 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교구본사도 4.3사건에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각 사찰들은 4월 말까지 4.3사건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진행한다.

이 같은 불교계의 제주4.3사건 위로활동은 당시 제주불교계 피해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제주불교계는 세미나와 연구를 실시하며 과거사를 조명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우 스님이 4.3 희생자 영단에 분향하는 모습.

4.3이 머우꽈? (무엇입니까?)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돼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당시 무장대원 350여 명은 제주지역 경찰지서 24곳 가운데 12개 지서를 공격했다. 이날 습격으로 경찰관 4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했다. 이것이 '제주 4.3사건'의 시발점이다. 1948년 10월 제주 토벌군으로 파견하려던 군병력이 반기를 든 '여순사건'이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은 커졌다. 중간산(해발 200~600m) 마을 95% 이상이 불탔고, 이듬해 3월까지 3만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 중 80%가 사망했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 수덕사 최종 승소

덕숭총림 산내암자 정혜사 부지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선학원과 수덕사 간 법적공방이 수덕사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는 3월 29일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결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종단채무 완전 해결"… 새출발 다짐

채무 20억 원 전액 상환, 종정 특별담화문도

태고종이 과거 종단분규사태 원인이었던 부채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3월 30일로 국민은행 채무 2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 원금 20억 원에 대한 누적이자 30억 원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탕감받았다"며 "운산 총무원장 재임 시 발생한 종단 부채를 말끔히 상환해 태고종은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4월 4일 발표했다.

앞서 前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재임 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건립비용을 국민은행에 대출받고자 태고종 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봉원사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종단 부채가 발생했다. 이후 선출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보증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도리어 태고종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다음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채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채무발생 책임자인 운산 스님과 인공 스님을 멸빈 징계에 처했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책임공방이 폭력 분규사태로 번져 세간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태고종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종단 채무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종단 부채를 완전히 갚게 됐다. 다만 봉원사 연지원 관련 S상호저축은행 원금 5억 원과 이자 5억5000만원은 일괄 타결을 진행 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태고종은 이어 "종단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과 함께 제2창종정신으로 새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1만 종도, 4천 사암을 포용한 한국불교 선두종단으로서 불교 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4월 2일 특별담화문을 내고 "태고종도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종단 발전과 태고종승 선양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종단 부채를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종도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엄중히 다스려줄 것을 하명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회향 널리 닦은 공덕을 이웃에게

회향(廻向)은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자리이타행입니다. 자기의 모든 공덕과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즐겁게 하고 병고가 없게 하며 착한 일은 쉽게 성취하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회향은 보시와 공양과 발원의 공덕의 힘을 이웃과 자신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데 쓰는 '공덕 나눔'입니다.

절에서는 정월기도나 화엄산림법회 같은 대법회와 불사를 마무리 할 때 성취한 것을 널리 베풀기 위해 회향법회를 엽니다. 기도나 불사의 공덕을 여러 이웃과 공유하는 의식입니다.

불교의 모든 의식과 법회는 사홍서원으로 회향합니다. 자기수행 공덕을 이웃에게 돌리는 자리이타 보살행을 완전히 실천하여 함께 성불할 것을 서원하는 회향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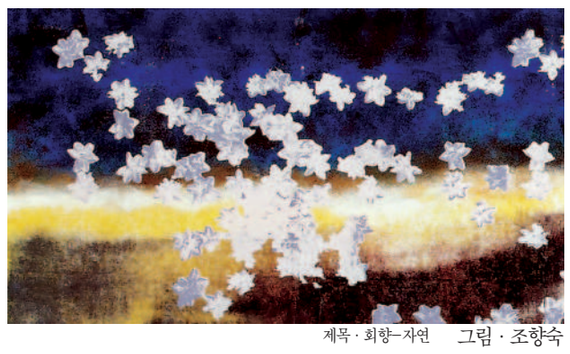
*해마다 낙엽이 떨어져 새 봄에 새싹을 틔우는 거름이 되듯, 회향의 공덕은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식모살이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하고 운명한 어느 할머니의 '회향의 공덕'은 그 재산으로 지은 연구실과 장학생들을 통해 오래오래 이어가며 꽃을 피웁니다.

울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40년 모은 저금통 2백여 개를 이웃돕기에 내놓았어요. 저금통에는 5천 1백여 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40년간 보시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 발원하는 마음을 2백여 개 저금통에 담아 이름도 밝히지 않고 회향했습니다. 그 온정을 받은 이웃들의 감사는 '회향의 향기'입니다. 회향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공덕을 나눔으로 모든 존재와 착한 관계를 맺고 행복을 가꾸는 사랑입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과 청정한 게송을 읊자 선재동자와 여러 보살들은 기뻐 어쩔줄 몰라했고, 부처님은 "그렇다. 그렇다"고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공덕과 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리라' 보개회향원(普皆廻向願)으로 마무리하는 보현보살 10대원의 게송 일부분을 다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제목 · 회향-자연 그림 · 조향숙

"훌륭한 복 다 돌려주어
끝없는 이웃에 이익주리"
자리이타의 '공덕 나눔'

"지혜와 행 널리 닦은 공덕의 힘
위신으로 덮어주는 자비의 힘
깨끗하게 장엄한 복덕의 힘
집착없고 의지없는 지혜의 힘
원만하게 쌓아 모은 보리의 힘
보현행을 원만하게 닦은 힘으로
한량없는 이웃들을 해탈케 하며
그지없는 법문을 분별 잘하여
지혜바다 깊이 깊이 들어가리라.

오래잖아 보리수 아래 앉아서
여러 가지 마군들을 항복받나니
정각을 성취하고 법을 설하여
끝없는 이웃들에 이익 주리라

바라건대 보현보살 거룩한 행
그지없이 훌륭한 복 다 돌려주어
삼계 고해 빠져있는 모든 이웃들
평화로운 정토에 어서 가소서"

불자 여러분, 이제 회향의 삶을 합장 발원합시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화엄 이치 완벽해설… 學僧 40년 원력 '오롯이'

대강백 무비 스님, 〈화엄경〉 강설 81권 완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일생을 경전연구에 몰두한 조계종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전부를 해설한 강설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4년 1권을 펴낸 데 이어 4년여에 걸친 대작불사는 한국불교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불교계도 이를 경축하며 부처님 전에 강설집을 봉정했다.

"화엄을 봐야 진짜를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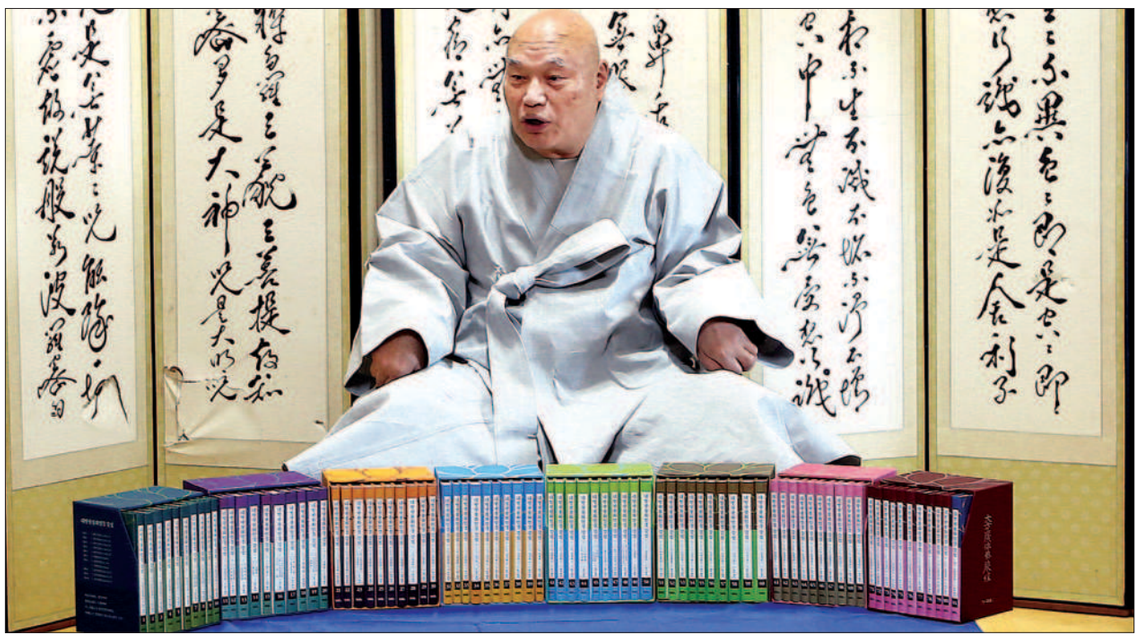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설정)과 금정총림 범어사(주직 경선)는 4월 4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봉정법회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봉정법회는 부처님께 먼저 책을 올리는 봉정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000세트를 조계종에 기증했다.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총 81권으로 구성돼 이번에 기증한 책을 권수로 나누면 총 8만1000권에 달한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봉정사에서 "무비 스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법공양은 이 나라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야 한다"며 "부처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고, 부처님 진리 속에 인류평화와 세계평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2014년 1권 발간 후 4년만에
강설집 완간, 국내 최초 사례
"화엄 공부해야 부처님 만나"
범어사서 4월 4일 봉정법회
사부대중 1000여 명 동참해
무비 스님 강설집 1천질 기부

무비 스님은 편찬사에서 "〈화엄경〉의 한자 수가 10조9만5000천자가 넘는다.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며 "나는 화엄경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대로가 화장장엄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부처님이다. 〈화엄경〉을 읽고 공부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중이 경전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4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81권 완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금강석 같은 원력 앞에선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화엄경 전체 해설집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화엄경〉은 80권에 보현행원품을 포함해 총 81권으로 구성된 대경전이다. 강설집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오래됐지만 그 내용이 방대해 전부를 풀어낸 이가 없었다.


4월 4일 범어사에서 열린 봉정법회에서 무비 스님이 부처님 전에 강설집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무비 스님이 〈화엄경〉을 처음 만난 것은 1963년 해인사 강원 화엄경반에서다. 1970년대 초, 구례 화엄사 구층암에서 범룡 스님의 〈화엄경합론〉을 사경한 것이 두 번째 인연이다. 화엄경 강설집 원력은 같은 해인 1970년대 중반에 세웠다. 탄허 스님의 〈화엄경합론〉 출판에 동참하면서 대중에게 어려운 한자가 안타까웠다. 무비 스님은 좀 더 쉽게 대중에게 〈화엄경〉을 알리길 서원했다.

이후 무비 스님은 〈화엄경〉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에는 〈한글화엄경〉을 단락으로 나눴다. 1997년에는 한문 화엄경에 현토를 달았고 현대화된 강원 교재로 출판했다. 이번에 나온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40년 이상 연구한 무비 스님의 결과물이다.

"한문으로 된 〈화엄경〉을 보면서 한편으로 답답했다. 현대화된 말로 쉽게 번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무비 스님의 원력은 40년 만에 세상에 현현(顯現)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스님은 지병으로 인한 수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손을 다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어려움은 스님을 더욱 분발하게 했다. 집필을 위해 컴퓨터를 배워 워드 작업을 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집필에 매달렸다. "마치지 못하고 열반에 들까봐"라는 염려도 있었다. 결국 마지막 81권은 병원에서 만났다.

이제 스님은 개정판 집필에 착수했다. 1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무비 스님은 "책을 내고 나니 아쉬움이 많다"면서 "더 좋은 해설을 전하고 싶어 바로 개정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엄경〉은 대승경전 가운데 꽃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대중이 읽고 공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지 발굴 중 금동반가사유상 출토

영월 흥연선원지서 발견해
출처 분명한 최초 반가상
주조 · 도금기법 연구 예정

강원도 영월 소재 사지(寺址) 발굴 중 금동반가사유상이 발견됐다. 발굴 중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재)강원문화재연구소(소장 오제환)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월군(군수 박선규)과 함께 진행하는 흥녕선원지(강원도기념물 제6호)의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출처가 분명한 최초의 금동반가사유상인 흥녕선원지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은 높이 약 15㎝, 폭 약 5㎝이며, 조사지역 내 건물지에서 발견됐다.



출토 반가상에 대해 연구소 측은 "전체적인 유물 상태는 좋은 편이며 일반적인 반가부좌 형태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치고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팔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라며 "얼굴은 원형에 가까우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상의는 걸치지 않은 모습이고 머리에는 삼면이 돌출된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흥녕선원은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파의 본거지로, 통일 신라시대의 승려인 징효대사(826~900)에 의해 크게 번창한 사찰이다. 징효대사 탑비(보물 제612호)와 부도 등은 현재 법흥사에 남아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일산병원 '승가케어' 확대 본격화

건강증진센터 확장 오픈… 스님 전용 진료실 마련

동국대일산병원에 스님들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동국대일산병원은 4월 2일 건강증진센터 4층 로비서 건강증진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하며 동국대일산병원은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스님 전용 진료실과 전용 대기실, 전용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스님들만의 특화된 승가케어 검진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동국대일산병원이 지난해부터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국비구니회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뤄지는 사업들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이번 확장을 통해 동국대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가 나날이 발전되길 기원한다"면서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고객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파트너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국대일산병원이 확장 개소한 건강증진센터는 검진프로그램 구성 강화와 내원객의 편의성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 공간 확장과 기존에 운영됐던 내시경검사실을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회복실을 기존 5병상에서 10병상으로 대폭 증설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건강증진센터는 내원객들이 수면내시경 검사부터 회복 안정까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 제공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간 만큼 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화쟁위, 최저임금 주제 집담회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4번 째 집담회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4월 4일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교적 진단과 해법이 집중 논의하는 집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적 검토와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사회 갈등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왜 2020년까지 만원이어야 하고,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전문가적인 검토와 더욱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자와 사업주,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바라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향후 과제로 △최저임금위 내 적폐 극복할 제도개선 마련 △위반율 최소화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 △을들의 연대 진전 등을 제안했다. 박진형 기자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는 646년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스님들의 수계의식을
봉행하는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아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 근본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무술년 금강계단 보살계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소서

보살계 일정

입재 2018년 4월 20일(음. 3.5) 금요일
회향 2018년 4월 22일(음. 3.7) 일요일

• 동 참 금 5만원
•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 오전 8시~9시
• 기도접수처 화엄전 055)381-1288 / 팩스 055)372-7010

영축총림 통도사

봉은사,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 박차

서울시 문화재 지정 추진
3월 31일 택전의식 이어
4월 9일 생전예수재 시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월 31일 열린 택전의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이 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근본사찰인 서울 봉은사가 생전예수재의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나선다. 서울 봉은사는 3월 31일 생전예수재 택전의식을 봉행한데 이어 4월 9일 생전예수재를 시연했다.

이날 시연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작법학교장 법안 스님 집전으로 8시간에 걸쳐 봉행됐다. 의례의식은 명고·명전 10타를 시작으로 신중작법, 괘불·불패이운, 운수단, 사자단, 상단, 중단, 고사단, 마구단, 함합소, 회향봉송 순으로 불교전통이 그대로 재연됐다. 시연에 앞서 펼쳐진 택전의식에는 봉은사 스님들과 함께 대중 50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특히 봉은사는 과거부터 생전예수재와 수륙재를 양일에 걸쳐 연이어 진행한 전통이 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스님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안 된 것은 '연속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불교 전통이 미래세대까지 전승되고 강남 한복판에서 전통문화가 여법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1일 택전의식에는 수륙재 무형문화재 지정에 기여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불교민속학회장) 등 전문학자들이 참여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생전예수재는 단순한 불교의식을 넘어 옛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성찰의 계기였다. 친척과 친지 모두가 참여하기에 개인의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공덕의 의미도 지닌다. 또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퍼트리는 공동체 의식이기도 했다"며 의미를 평가했다. 홍 명예교수는 이어 "생전예수재 봉행 기록이 남아있는 봉은사에서의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은 사회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매년 수십만명의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찾는 봉은사에서 전통문화를 정기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문화전승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전예수재는 불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를 미리 지내는 의식으로 '미리(豫) 닦는(修)' 재로 불린다. 우리나라 생전예수재는 시왕신앙이 활발했던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했다. 현존하는 문헌 중 최초로 생전예수재가 기록된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경기도 광주 봉은사에서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많은 돈을 불단에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 같은 행사는 달이 다 가도록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고 믿어 사방의 노파들이 와서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린다' 고 전하고 있다.

즉 현재 서울 봉은사가 한국불교문헌에 기록된 예수재의 최초 설행 도량인 것이다. 봉은사에는 1984년과 1990년에도 예수재와 수륙재를 함께 설행하기도 했다.

이에 봉은사는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추진과 함께 2017년 6월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해 지속적인 의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02)3218-4828

대중 함께하는 적멸보궁 참배공간 낙성

구례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 탑전 복원불사 회향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적멸보궁 참배공간을 마련하고 호남최대의 불교성지로 거듭난다.

화엄사는 4월 2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4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 아래 탑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낙성한 탑전은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해 4년 만에 완공한 전면 3칸 40평 규모의 다포계 전통한옥이다. 특히 석탑이 보이는 면은 전면유리로 만들어져 신도들이 석탑을 보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석탑은 문화재 이전에 삼보에 해당하는 신앙의 대상"이라며 "탑전의 낙성은 원래 신행공간이었던 모습을 복원, 많은 신도들이 발원하고 서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엄사는 탑전 낙성과 함께 신중탱화 봉안과 동종 불사를 진행하며, 4월 16일부터 1000일 기도를 봉행한다.

탑전에서 바라보는 기도 대상인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은 네 마리의 사자를 모퉁이에 기둥삼아 세워 놓은 탑이다. 사자들에 에워싸여 있는 중앙에 합장한 채 서있는 스님상은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전하며, 바로 앞 석등에서 탑을 향해 끓어 앉아 어머니에게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4사자석탑은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한국 이형석탑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탑전 복원에 대해 화엄사는 "탑전은 화엄사에서 가장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근래 들어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었으나 원래 사부대중의 신행공간으로 다시 조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의 하층기단 속 채움의 유실로 2개 모서리부분에 변형이 발생해 진행된 보수정비공사는 석탑 해체 후 문화재 발굴과 하층기단 주변을 정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완공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종특별교구, 임관예정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

부교구장 남전 스님 "전법 임무 다하는 군승 되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4월 3일 부산 금련사에서 2018년 임관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식을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올해 임관 예정인 군승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3일까지 군법의 이해, 설법 점검, 불교의식 점검, 불교상담 방법론, 군 조직과 군종업무의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승들은 조계종 파송 스님으로서 정체성을 함양과 함께 군 장교로서 임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혔다. 회향식에서 항상 수행자임을 명심하고 인천(人天)의 사표(師表)로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회향식에서 군종교구 부교구장 남전 스님은 "군승들은 군포교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군포교 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전법의 임무를 다하는 군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16 앉음과 누움. 坐臥。

○書云, 久坐傷肉, 久臥傷氣, 坐勿背日, 勿當風濕成勞。坐臥於塚墓之傍'精神自散。

오래 앉아있으면 육(肉)이 상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기(氣)가 상한다. 앉아 있을 때는 태양을 등지지 말아야 하고, 바람이 불거나 습한 곳에 앉으면 5로(五勞)를 이룬다. 무덤의 곁에 앉거나 누우면 정신이 저절로 흐트러진다.

○書云, 臥出而風吹之, 血凝於膚爲痺, 凝於脈爲血行不利, 凝於足爲厥。

야외에 누워서 바람을 쐬면 피부에 혈액이 응결되어 마비되고, 경맥(經脈)에 응결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며 발에 응결되면 다리가 짧게 된다.①

○書云, 燭燈而臥, 神鬼不安。臥宜側身屈膝, 不損心氣。覺宜舒展, 精神不散。舒臥招邪魅。孔子云, 寢不尸。

등불·촛불을 켜놓고 자면 신혼(神魂)이 불안하다. 잘 때는 옆으로 누워 한쪽 무릎을 굽혀야만 심기(心氣)가 손상되지 않는다. ② 잠에서 깨어나면 서서히 일어서서 팔다리를 펴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팔다리를 펴고 편히 누우면 삿된 도깨비를 부르게 된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체처럼 누워 자지 말라."

○書云, 寢不得言語。五臟如懸磬不懸, 不可發聲。孔子云, 寢不言。

누워서 말하지 말라. 5장(五臟)은 본시 석경(石磬 ③)처럼 매달려있는데 누워있을 때는 매달려있지 않으니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누워서 말하지 말라."

○書云, 臥勿以脚懸踏高處, 久成腎水虛損足冷。

누운 채 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지 말라. 오래 행하면 신장(腎臟)의 수기(水氣)가 허손(虛損)되어 발이 차가와진다.

○書云, 臥不可戲, 將筆墨畵其面, 魂不歸體。

누워서 잠자는 사람의 얼굴에 장난삼아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라. 자는 사람의 혼(魂)이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 書云, 臥魘不語, 是魂魄外游爲邪所執。宜暗喚, 忌以火照, 照則神魂不入, 乃至死於燈前。魘者本由明出, 不忌火, 並不宜近喚及急喚, 亦恐失伸魂也。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의식은 있으나 깨어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혼백(魂魄)이 몸 밖으로 돌아다니는 틈에 사기(邪氣)가 침입한 것이다. 마땅히 조용히 말하며 흔들어 깨어야 얼굴에 등불을 비추면 혼백이 불빛을 싫어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등불 앞에서 죽게 된다. 가위눌린 자는 병의 원인이 밝음을 좋아하여 등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소리로써 깨우려다가는 혼백을 잃는 수가 있다.

○ 書云, 臥處頭邊, 勿安火爐。日久引火氣頭重, 目赤, 鼻乾, 發腦癰, 瘡癤。

누워서 머리 있는 곳의 주변에 화로를 두지 말라. 여러 날 동안 지내면 화기(火氣)가 머리로 침입하여 머리가 무겁고 눈은 충혈 되고 코는 마르고 뇌 안이 곪게 되고 온몸에 부스럼과 종기가 생긴다. ④

○書云, 臥習閉口, 氣不矢'邪不入。若張口, 久成消渴, 矢血色。又夜臥勿覆頭, 得長壽。濯足而臥, 四肢無冷病。又醉臥當風, 使人發瘖。醉臥黍穰中, 發瘡, 患大風, 眉墮°又雷鳴時仰臥, 星月下偰臥, 當風中醉臥, 以人扇之, 皆不可也。

잠잘 때는 입 다무는 습관을 지니면 기(氣)를 잃지 않고 사기(邪氣)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입을 벌리고 잠자는 버릇이 오래되면 당뇨병이 생겨 얼굴이 혈색을 잃는다. 또한 밤에 잠잘 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지 않으면 장수한다. 발을 씻고서 누우면 팔다리가 차가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바람을 쐬면 목이 쉰다. 술에 취한 채 기장줄기의 사이에 누우면 악창(惡瘡)이 생기는데 악화되면 대풍창(大風瘡)⑤)이 되어 눈썹이 빠진다. 우레가 칠 때 누워있거나, 달'별이 뜬 밤에 나체로 누워있거나, 바람을 쐬거나, 술 취한 채 누워서 바람을 쐬는 것, 부채바람을 쐬는 것도 모두 불가하다.

○ 陶隱居云, 臥處須當傍虛歇, 烘熾衣衾, 常損人。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누워있는 곳의 곁은 반드시 별다른 물건이 없이 비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복·이부자리가 지나치게 따뜻하면 사람에게 해롭다."

○ 書云, 飽食卽臥, 久成氣病, 腰痛, 百疴不消, 成積聚。

배불리 먹은 즉시에 눕는 습관이 오래되면 기병(氣病)과 요통을 이룬다. 또한 온갖 고질병이 낫지 않으며 적취(積聚)를 이룬다. ⑥

○ 書云, 汗出不可露臥及浴, 使人身振, 寒熱, 風疹。

땀이 흐르는데 노천(露天)에 눕거나 목욕하면 몸이 떨리거나 한열(寒熱)이 있게 되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돋는다. ⑦

○ 書云, 坐臥處有隙風, 急避之。尤不宜體虛年老之人。有人三代不壽, 問彭祖。祖觀其寢處, 果有一穴, 當其腦户, 令塞之, 遂得壽盡。隙風入耳, 吹腦則陽氣散。頭者, 諸陽所聚, 以主生也。

앉거나 누워있는 곳에 틈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거든 급히 피하라. 이는 허약한 노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다. ⑧

어떤 사람이 3대째 오래 살지 못하여 그 이유를 팽조(彭祖)에게 물었다. 팽조가 침실을 보니 잠자리에 누운 사람의 뇌호(腦户)에 해당되는 곳에 과연 한 구멍이 있길래 이를 막게 하니 이로 인하여 그는 제 수명이 다하도록 장수하였다. 틈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귀로 들어가 뇌를 침입하면 양기(陽氣)가 흩어진다. 머리는 제양(諸陽)이 모여서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註解

① 야외에 누워서 ~ 짧게 된다. :

어느 여름 날, 30代 여자가 내원하여 右下肢癱痺症을 호소하였다. 3일 간 針과 服藥治療를 해도 전혀 무효이길 레 물어 보았다. "매일 하루 종일 선풍기, 에어컨을 쐬시며 냉수샤워를 10번은 하시죠?"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오늘부터 선풍기에어컨을 전혀 쐬지 마시고 샤워는 온수로 한번만 하세요." 그녀는 그대로 실천하여 다음 날부터 대호전하여 치료받지 않고도 5일 만에 완쾌되었다. 역자는 이러한 예를 여러 번 겪었다.

② 잘 때는 옆으로 ~ 손상되지 않는다. : 道士 陳希夷(五代末 ~宋初)의 《睡功圖》도 그러하나 양손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左右 어느 쪽으로 누워도 무관하나 석가모니불은 우측으로만 누워 주무셨으며 우측으로 누워 涅槃에 드셨다고 한다.

③ 석경(石磬) : 正樂의 연주 때는 악기의 일종. 여러 개의 옥돌을 크기와 두께가 다르게 ㄱ자 모양의 板으로 깎아서 일렬로 매달아 놓고 쳐서 소리를 낸다.

④ 누워서 머리 있는 곳의 ~ 종기가 생긴다. : 인체의 건강은 水氣는 상승되고 火氣는 하강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水昇火降이 되지 못하여 생기는 질병의 대표적인 것이 두통, 불면, 고혈압, 비염, 眼充血, 顔面紅潮이다. 즉 肋膜以上의 心肺와 頭部는 차게 해야만 火降이 되는데 근래에는 가슴 윗부분이나 머리부근에 온풍기, 온열기가 있으니 이는 上焦疾患의 원인이 된다. 의료기관의 온열치료기도 가슴'머리부근에 시술해서는 안 된다.

⑤ 대풍창(大風瘡) : 原名은 大風이다. 《素問·長刺節論》에 의하면 骨節이 무겁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진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⑥

법휘 스님 정토마을 영적돌봄가

"삶 소중함 알게 돼… 부처님 법 경험 계기"



2010년 운문사 강원 사집반이던 법휘 스님은 능행 스님의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처음 죽음을 다시 바라봤다고 한다. 당시 스님은 이 교육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운문사를 졸업한 뒤 2013년 10월 정토마을에서 영적돌봄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호스피스 교육을 처음 받으면서 나와 너의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마음의 고통은 진실 되게 그것을 마주하고, 표현할 때 벗어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문사를 졸업할 무렵, 출가 수행자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정토마을을 찾게 됐습니다."

상실의 아픔 앞에서 스님은 오히려 그들을 마음껏 그리워하면서 슬픔을 치유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임상을 통해 매일 떠난 분들을 축원하며 초를 밝히고 상실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우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런 스님도 죽음 앞에 놓인 환자나 그들의 보호자를 만나러 가는 매 순간은 두렵다고 한다. 그들의 고통과 죽음 앞에 한없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의 영적 고통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고통을 겪는 가족들의 좌절감은 저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우리의 괴로움은 나라고 믿는 존재로 인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임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고귀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부터 온전하게 존재해야 하고, 그대로의 저를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분별과 판단 없는 마음이 돼야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영적돌봄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병상에 가는 일이 설렌다고 한다. 어느 순간보다 가장 고귀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 삶을 마무리하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스님은 "앞으로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이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石에 새긴 옛 기록, 墨으로 되살리다

조계종 불교중앙博 '2018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 현장

강원도 고성=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있는 사명대사기적비편은 사명당 유정(1544~1610) 스님의 행장을 기록한 비석이다. 하지만 이 비석은 1912년 일본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건봉사 초입에는 비석들의 이수와 비편들이 수습돼 있다.

이 같은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돌무더기로 보였다. 돌 하나에 물을 뿌리고, 종이를 입혔다. 이내 솔방망이질로 종이를 비편에 밀착시키고, 다시 천을 덮어 두드리길 수차례. 최적의 습도가 만들어지자 먹봉으로 먹을 치기 시작됐다.

'톡 톡 톡.' 먹봉이 오르내리자 종이에 선명하게 비문 내용들 확연히 드러났다. 너무 섬세했다. 먹을 치니 비편의 흠집마저도 종이에 올라왔다. 탁본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흥선 스님이 말했다.

"탁본할 수 있는 순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날씨, 습도, 바람까지 모두 도와야 좋은 탁본이 나와요. 재료가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탁본은 예술품으로 봐도 됩니다."

금석문 기록을 기록하다

탁본(拓本)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문양 등을 먹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기실 금석학과 탁본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첩(法帖)이라 해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금석문조사사업'은 탁본을 통해 금석문들의 기록들을 다시 기록·연구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작업들이다. 지난해에는 경북·대구 지역 금석문 50기(불교 13기·일반 37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고성 건봉사를 시작으로 강원도 일대 95기의 금석문에 대한 탁본 조사와 연구가 이뤄진다. 조사단 단장은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이 맡았으며, 연구 진행은 흥선 스님이 책임연구원으로 탁본 작업을 총괄한다. 탁본 작업은 베테랑 연구원 6인이 3개조로 나눠 진행한다.

조사단장 오심 스님은 "금석문은 돌과 금속에 새겨진 옛 선조들의 기록들로, 일종의 타임캡슐"이라며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탁본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最高 수준의 탁본 위해서

4월 3일 강원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현장보고회에서는 조사단 책임연구원 흥선 스님의 탁본 작업 설명이 진행됐다. 흥선 스님은 제대로 된 탁본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료·환경·실력'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흥선 스님에 따르면 탁본의 재료인 종이는 제일 좋은 한지(韓紙)를 이용한다. 먹물 역시 기계로 갈면 안 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먹물은 방부제가 들어있어 사용 금물이다. 오로지 좋은 먹을 하루 사용할 물량만 손으로 갈아서 탁본에 사용한다.

그냥 돌인가 했는데 먹방망이 치니
비문 나타나며 옛 기록을 복원한다

2013년 시작된 금석문 탁본 조사
올해엔 강원지역 95기 비문 탁본
건봉사 경내 비석 탁본 작업 진행
최고 실력가 흥선 스님 진두 지휘

종이를 밀착시키기 위한 '나무 솔'은 조사단에서 별도로 주문해서 만든 것을 쓴다. 종이에 먹을 치는 방망이는 일반적인 솜이 아닌 좁쌀에 천을 감싸 제작했다. 모두 탁본 전문가 흥선 스님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에 흥선 스님은 "종이는 한국산 닥나무를 재질로 전통 방법으로 제작한 한지를 사용한다"며 "시중에 '나무 솔'은 재질이 좋지 않고 너무 길어서 사용하기 어렵다. 좋은 탁본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탁본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이다. 너무 덥고 건조하면 종이가 빨리 말라 탁본할 수 있는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바람이 많이 불면 비석에 붙인 종이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탁본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의 실력도 중요하다. 매우 세세한 작업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흥선 스님은 "종이를 붙일 경우 한 번에 붙여야 한다. 주름이 잡히면 안 된다"면서 "종이를 밀착시키기 위한 솔방망이질도 수직으로 이뤄져야 한다. 종이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탁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을 칠 때도 마찬가지"라며 "먹봉을 수직으로 해서 일정하게 두드려야 고르게 먹이 앉히고 좋은 탁본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2018년도 금석문조사사업의 책임연구원 흥선 스님이 4월 3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사명대사사적비편의 탁본을 진행하고 있다.

탁본, 기록과 예술의 정점

탁본은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기도 하다. 완벽한 조건이 되도록 시간을 맞춰 작업해야 하며 먹을 칠 때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먹봉을 두드려야 한다. 1.7m 비문을 한 면을 탁본하는데만 1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먹의 농도를 조절하며 평균 5번을 먹봉을 치는 작업을 한다.

권순노 조사단 연구원(43)은 "처음 탁본을 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면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다반사이지만, 탁본이 좋게 나오면 고됨도 잠시 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 자문위원들도 일련의 탁본 작업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는 "흥선 스님의 탁본은 현재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면서 "불교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금석문 탁본 조사의 결과물은 관련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묘지명집성' 등 금석문 연구로 잘 알려진 김용선 한림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탁본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일제에 의해 파괴된 사명대사기적비가 지난해 복원될 수 있던 것은 이전 시대의 탁본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비문의 글씨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탁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탁본을 통해서는 당시 서각 수준과 서체, 서풍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금석학뿐만 아니라 서예사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현장보고회 이후 2018년도 금석문조사사업 자문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TIP 금석문 탁본 과정



현장에서 탁본은 습탁(濕拓)이다. 습탁은 비석에 물을 뿌리고, 종이를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종이를 최대한 밀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작된 나무 솔로 일정하게 두드린다. 이 같은 솔방망이질은 수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적의 탁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습도 조절은 필수다. 이를 위해 천이나 키친타월을 덮어 두드려 습도를 조절한다.



습도 조절이 이뤄지면 먹봉으로 종이에 먹을 친다. 처음부터 진하게 하지 않고 수차례 먹을 치면서 농도를 조절한다.



세계불교학연구소 특별강연

“베트남인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

주제 : 베트남 불교의 역사와 현황

석일자(釋日慈) 스님



석일자(釋日慈) 스님은… 베트남불교협회 이사회 위원, 베트남 호치민시 승가대학교 부총장을 맡고있다. 또한 베트남불교연구원 부원장과 중앙승려교육부 부총장, 중앙포교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베트남 불교는 기원전 3세기에 시작해 2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소카 황제는 인도의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의 서쪽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계 나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불교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다.

불교전래와 수용베트남에 처음 불교를 전한 사람은 중국 후한 말에 〈이혹론(理惑論)〉을 쓴 모자(牟子, 165-251)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승려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한문 불교도 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베트남 불교는 고대부터 10세기까지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고대 중국 3개의 불교센터(Lo Yang, Ring Ch'eng, Luy Lau) 가운데 교주(Giao Chau, 交州)의 수도인 루이 라우(Luy Lau)센터는 1세기 한 왕조 때 제일 먼저 설립됐다.

동부 한 왕조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이 라우(Luy Lau)는 점차 남 중국과 양쯔강(Yangtse River Valley)에 이르는 인도 승려들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채택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고대 불교의 베트남 불교 특징 중 하나는 인도 선교사들이 중국에 퍼지기 오래 전에 교주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스님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베트남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곧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북속(北屬)돼 있던 말기, 승려들은 선진 중국으로 유학했고, 또 중국 승려들이 베트남으로 오는 등 교류가 빈번했으며, 학문이나 사상에서 승려들은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베트남이 혼란기를 지나 최초의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룬 것은 1009년 이공온(Ly Cong Uan, 李公蘊)에 의해 열린 이조(Ly trieu, 李朝) 때부터다. 이조(李朝)는 불교를 보호하여 많은 절을 짓고 승려들을 보호했다. 특히 이태조(太祖: 李公 蘊)는 창업 초기 10개의 사찰을 지어 불교를 흥륭시키는 한편, 송(宋)에 사절을 보내 대장경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태조(Ly Thai To) 왕과 그의 후계자들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국가 종교로 인정했다.

그러나 진조(陳朝)가 망하고, 후여(後黎)가 성립(1428)하자, 불교는 크게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후여(後黎)는 중국 명(明)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크게 숭상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교는 쇠미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후여의 성종은 1461년 전국에 사찰을 새로 짓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사령(寺領)을 엄격히 제한했다

17세기에 베트남에 온 많은 중국 승려들은 연종(蓮宗)와 조동종(曹洞宗) 같은 선종을 설립했다. 그들은 따뜻하게 받아 들여졌으며, 동시에 죽림파(Truc Lam Ch'an, 竹林派) 종파의 복원을 장려했다.

19세기말에 이르러 베트남은 서구 식민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1900년 라오스 ·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규합되면서, 정치적 독립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결과 동시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독립동맹은 8월 혁명에 성공, 완조(院朝)를 무너뜨리고 외세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음해 다시 베트남을 지배하려고 전쟁을 시작했고, 베트남민족주의 세력은 이에 항전해 마침내 1954년 완전 승리했다. 미국은 응오딘 지엠 (Ngo Dinh Diem)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을 사이공에 만들었다.

1963년에는 불교도들이 나서 투쟁으로 군사정부 무너뜨려 계리(契理) · 계기(契机) 지키는것 베트남불교 가장 중요한 가치

이에 대해 임제종의 종장(宗長) 틱꽝득 스님은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폭력 항쟁에 참여했고, 정부에 여러 번 간곡한 편지를 보내 불교탄압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지엠 정권의 불교탄압은 중단되지 않았다. 1963년 남부베트남 불교도들은 반정부운동을 전개하여 숱한 희생을 치루며 10개월 만에 군사정부를 무너뜨렸다.

응 오딘 지엠 정부가 멸망 후, 1975년에 나라가 통일되고 나서 틱 찌투 스님이 이끄는 베트남 불교 여러 계파를 통합운동이 있었고, 1981년에는 베트남 불교승가회가 설립됐다. 1981년 하노이에는 불교학원(Higher Buddhist Studies Institute)이 건립됐고, 1984년에는 호치민시에 또 불교학원 한 곳이 더 설립되었다. 수학하는 승려들은 불교학원을 졸업하고 나서1989 년에 설립 된 베트남 불교연구소에서 연구자로서 근무하거나 국내외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대표적 종파

우선 선종이 있다. 6세기 중국에서 인도인 보리달마(Boddidharma, 菩提達磨) 선사부터 설립된 종파다. 불교에 따라 명상(dhyana)은 ‘마음의 진정’을 의미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일체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일이다. 선불교에 따르면, 명상할 때에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마음 망상’ 즉 중생의 산란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른 선종은 베트남에서 발전되었다.

정토종(淨土宗), 정토 불교는 불교 종파다. 정토교 또는 정토문(淨土門)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토종은 아미타불의 구원을 믿고, 염불을 외어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에 왕생(往生)하여 깨달음을 얻는다고 설하는 종파이다. 정토종은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 ·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 〈아미타경〉(阿彌陀經)의 이른바 ‘정토3부경’ (淨土三部經)에 바탕을 두고 인도 불교에서 용수(龍樹) · 세친(世親) 등의 사상적 조직화를 거쳐, 중국 불교에 이르러 발달하였다.

밀종이나 밀교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신주독송을 주장하는 종파이며 달마종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대승불교 말기인 7세기 후반에 갑자기 융성한 유파로, 대승불교의 〈반야경〉(般若經), 〈화엄경〉(華嚴經)과 중관파(中觀派) · 유가행파(瑜伽行派) 등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밀교의 독립은 〈대일경〉(大日經), 〈금강정경〉(金剛頂經) 등 근본경전의 성립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소개된 밀교는 독립적 종파로서 존재하지 않았고 민간신앙인 무당, 법술, 부적 등과 잘 융합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베트남 걸사 불교 (乞士派), 베트남 탁발승 불교는 1944년에 민당꽝(Minh Dang Quang)조사가 설립자다.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기초해서 세우며 대승불교 및 초기불교를 융합하는 종파이다. 20세기 후반에는 베트남 불교 진흥 프로그램에 앞장을 섰고 베트남불교 발전하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베트남 남방불교는 인도 승려들한테서 가장 먼저 베트남에 소개됐다. 하지만 북방불교는 중국에서 수입된 후 점차적으로 기존의 남방 불교를 대체하고 있었다. 현재 남방 불교는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크메르(Khmer) 민족 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30년 후부터 호송, 부우 전, 선법스님 등의 한하여 캄보디아의 남방불교 포교를 시작했다.

베트남 불교의 특징전파 및 통합의 경로에서 불교는 항상 두 가지, 즉 계리(契理)와 계기(契机)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두 요소 중 하나만 빠진다면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계리와 계기를 유지하고 개발한 불교는 베트남과 다른 나라로 전파된다.

베트남에 전파된 후 불교의 각 종파들은 서로 뒤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비니다류지는 밀교와 섞여 있으며, 고승, 선승들은 불법을 능통하면서 법술에 대해 뛰어난 신통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종은 정토종과 잘 혼합해 명상하면서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도 하고 있다. 19세기 초기 전국을 통일한 완(Nguyen) 왕조의 정책은 불교의 민중종교적 특성을 강화하였고, 베트남불교의 절충적 성격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쪽 사찰에는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를 합한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찰에는 남방불교 형식에 따라 석가모니불만 신봉하면서 북방불교 교리를 강설하고 수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복도 노란색 가사 외에 간색, 회색 법복등도 흔히 같이 사용됐다. 베트남은 최초에 불교를 수입했고, 그 다음 북방불교는 도교를 받아줬다. 마지막으로 유교까지 용합하며 ‘삼교동원’ 및 ‘삼교동귀’로 만들었다.

베트남불교가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베트남불교가 중생, 곧 인민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 통일 이후에는 국민의 재교육이 필요했는데, 베트남 남부의 사찰은 저녁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재교육 장소로 활용됐다.

하지만 사찰은 거의 설법을 하지 않으며, 예불의 식만 진행하는 까닭에 신도들에게 수행과 불법을 가르치지 못 한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불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자동적으로 탈교하는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서구 국가들이 베트남 불교통일을 이용하여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를 비롯한 베트남불교는 서방 국가 간의 정치적 도전을 맞서야만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20세기 동안 베트남 불교는 베트남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국가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도입 초기부터 베트남 불교도들은 불교가 2000년 이상 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던 사랑, 관용, 동정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알려지지도 않았거나 잘 알려진 베트남 승려와 신도들이 베트남의 방식과 풍습으로 색칠 된 독특한 베트남 종교로 여겨져 왔다. 한편, 베트남 불교는 베트남 문학, 예술, 음악, 건축 및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고, 말하자면, 베트남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서로의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불교학에 대한 열린 사고와 깊은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동국대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불교 교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베트남 호치민시 승가대학교 부총장 석일자(釋日慈) 스님은 4월 5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베트남 불교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은 “베트남 불교는 베트남 문학, 예술, 음악, 건축 및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고, 말하자면, 베트남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판매가	할인가	수량(선착순)	선금주문기간	배송기간(입금순)
첫물차	120,000원	38,000원	1,000통 한정	4월10일 까지	5월10일 까지
두물차	80,000원	23,000원	2,000통 한정	4월20일 까지	5월20일 까지
세물차	50,000원	12,000원	3,000통 한정	4월30일 까지	5월30일 까지

* 주문방식 : 온라인 www.choyeetea.co.kr 혹은 전화 061)285-0301~2로 주문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100-9481-71 / 국민 796201-01-453893 (예금주 : 주식회사 초의차)

격조있는 佛·儒 교류 보여준 善緣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⑦ 유산 정학연이 보낸 편지

유산 정학연(酉山 丁學淵, 1783~1859)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장남으로, 초의와 추사 김정희(1786~1856)를 연결해준 인물이다. 강진 다산초당에서 처음 만난 정학연과 초의는 평생 돈독한 우정을 나눴다. 특히 처음 한양을 찾았던 초의에게 적극 도움을 주었던 정학연은 1830년경 2번째 상경 길에도 물심양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실제 초의가 경화사족들과 폭넓은 교유를 확대했던 계기는 정학연이 마련해 준 것이라 하겠다.

이들은 각기 수신과 수행을 실천하며 지향했던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유자(儒者)와 승려라는 신분을 초월한 이들의 우정은 조선 후기 격조 있는 유불의 교유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돈독하게 한 매개물은 시와 차, 편지이다. 뜻을 공유하고 서로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이들의 인간적 우정은 대를 이어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선연(善緣)이라 할 수 있다.

실로 정학연이 살던 마현과 초의의 수행처 대흥사는 천리나 되는 먼 길이다. 인편이 있을 적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서신과 시통(詩筒)을 보냈던 사람들이다. 서로의 향상을 격려했던 이들의 자취들은 화답했던 시문과 편지에 또렷한 자취를 남겼다.

정학연이 1846년 2월 28일,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안부뿐 아니라 수룡 색성(袖龍賾性, 1777~1845)이 열반했던 연도를 밝힐 근거를 남긴 자료라는 점이다.

수룡은 대흥사 승려로, 아암의 제자이다. 범해의 〈동사열전〉에 의하면 전라남도 관촌 출신으로, 어려서 대흥사로 출가해 모윤의 제자가 되었다. 조선 후기 대강백이었던 아암 혜장(兒庵惠藏 1772~1811)에게 〈주역〉을 배웠고, 〈정법안장〉을 전수받았으며 수룡이란 법호를 받았다고 한다. 〈동사열전〉에는 북암에서 8월 15일에 입적했다고 했을 뿐 열반 연도를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룡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다른 자료에서도 그의 열반 연도를 추측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가 주로 강진 만덕사에서 수행했던 대흥사 승려였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다산의 전등계 제자인데 이런 사실은 정학연의 편지에 "어느 날 내직內直(다산)께서 상원(上院)과 여암(如菴) 사이에 오셨을 때에 스님들과 불자(拂子)를 세우고 편안히 담소했던 것은 이사람 뿐이었습니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정학연의 편지에는 다산과 수룡의 관계를 "수룡 스님이 입적하셨다니 천리에서도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이 노스님께서 일찍이 산방(山房) 야사(野寺)에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라 그립고 아낌이 출중합니다. 옛 친구가 돌아갔다니 어찌 슬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이는 바로 만덕사의 산내 암자에서 머물던 다산을 곁에서 모신 이가 바로 수룡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따라서 그의 편지는 자신과 초의와의 관계뿐 아니라 수룡과 다산의 관계는 물론 1846년경 자신의 정황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개인 간에 주고받은 안부나 요청 등을 담고 있는 편지가 새삼 중요한 정보를 담은 직접 사료라는 점을 유산의 편지에서 거듭 확인하게 된 셈이다. 그의 편지를 살펴보면 그 크기는 32.0×42.1cm 정도이며 서첩 속에 들어 있던 자료로 피봉이 망실되었다. 유산 글씨의 특징이 잘 드러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산 정약용의 장남 유산 정학연이 1846년 2월 28일 초의에게 보낸 서간문. 서로의 안부를 묻는 애틋함이 담겨 있다. 또한 당시 대흥사의 명명높은 승려인 수룡색성의 열반 연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수룡 스님이 입적하셨다니 천리에서도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이 노스님께서 일찍이 산방(山房) 야사(野寺)에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라 그립고 아낌이 출중합니다. 옛 친구가 돌아갔다니 어찌 슬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비는 마쳤는지요. 모든 일이 끝이로군요. 봄추위가 품을 파고듭니다. 이런 때 (초의)스님은 맑고 강건하시고 용상도 모두 편안하지요. 철우노사의 수행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소식을 듣지 않은지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때로 망연히 노심초사하여 잊지 않았습니다. 늙은 저는 4년 동안 괴이한 병이 들어 머리가 부도의 정수리처럼 되었고 이빨은 마치 썩은 흙 장승같으며, 눈은 해골 구멍같이 광채를 다 잃어 일말 싸늘한 시체 같습니다. 수룡스님의 앉자 망탈(忘脫)한 좌화(坐化)것과 견준다면 도리어 뒤진 감이 있지만 스스로 가련해한들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사뿐히 걷는 서하객(徐霞客)과 같겠습니까. 어느 날 내직內直(다산)께서 상원(上院)과 여암(如菴) 사이에 오셨을 때에 스님들과 불자(拂子)를 세우고 편안히 담소했던 것은 이사람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대하니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분원(광주분원)의 자기창에서는 묘한 그릇을 만듭니다. 스님께서 쓰실 정병(淨甁)과 바루(飯鉢)를 찾아 둔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인편이 마땅치 않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찌 해야 할지요. 마침 紺泉(윤종심)이 파수(灞水)를 건너간다고 하니 산란한 마음으로 몇 줄 편지를 씁니다만 어느 날 스님께 도달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서식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1846년 2월 28일 유산 정학연 병부 화남

袖龍笮寂 千里傷神 此老曾侍先人於山房野寺者 而眷愛出衆矣 舊交零落 寧不悲歎 已茶毗否 萬事已矣 春寒入懷 此辰法履淸健 龍象皆安 鐵牛老師禪ø∨更如何 漠未聞消息 有時 忽然 勞心無以忘矣 老物怪疾四年 頭如浮圖頂 齒如朽ß臼眼如 孔 神彩都亡 一末冷屍 比袖龍坐化 還遜一籌 自憐 奈何 何由快步 如徐霞客 一日內直到上院如菴之間 與師輩拂穩談 此生已矣 臨紙潸然耳 分院瓷廠産妙瓷 覓師輩淨甁飯鉢 置之已久 而無以因風吹送 亦復奈何 適因紺泉渡灞行悵悼數行書 未知何日達梵展 都留 不究書式

丙午 二月 卄八日 酉山病夫 和南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편지는 수룡의 열반 연도를 가늠할 자료이다. 범해의 〈동사열전〉에 8월15일에 열반했다고 했으니 적어도 이 편지를 쓴 1846년 2월 이전에 이미 수룡은 열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학연이 수룡의 열반 소식을 들은 해가 1846년경이고 실제 수룡이 열반한 해는 1845년 8월15일이라 짐작된다.

다산의 장남인 유산 정학연
평생동안 초의와 교류 '돈독'
추사와 초의를 연결한 인물

1846년 2월 末 보낸 편지엔
서로 안부 묻는 애틋함 담겨
수룡색성 열반연도 가늠 가능

한편 1846년경 정학연은 중병을 앓고 있었으니 바로 "늙은 저는 4년 동안 괴이한 병이 들어 머리가 부도의 정수리처럼 되었고 이빨은 마치 썩은 흙 장승같으며, 눈은 해골 구멍같이 광채를 다 잃어 일말 싸늘한 시체 같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1842년 경부터 병환을 겪고 있었고 1846년 경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 "싸늘한 시체"와 같다는 정황을 초의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임에도 그가 초의를 생각하는 마음은 지극했다. 당시 그는 경기 분원 자기창의 관리 소임을 맡고 있었다. 초의를 위해 "정병(淨甁)과 바루(飯鉢)를 찾아 둔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인편이 마땅치 않아 보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마음의 증표는 초의를 위해 늘 성의를 다하는 정황을 나타낸 것이다. 더구나 정병과 바루는 승려였던 초의에게 긴요한 물품이며 광주 분원에서 생산된 물품은 왕실에 납품된 귀품이다. 좋은 물건을 보면 초의를 생각했던 이들의 우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 편지에서 언급한 서하객(徐霞客 1586~1641)은 바로 명나라 말기의 지리학자이다. 강소성 출신으로 광조라는 사람이다. 1636년 51세 때 절강·강서·호남·광서·귀주·운남 등지(等地)의 지리(地理)를 조사했다고 한다. 근래에 그를 뛰어난 지리학자로 주목한 바가 있으니 서하객처럼 건강하게 천하를 주유하고 싶은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병중에 있었던 그의 심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한편 정학연의 이 편지는 감천 윤종심(紺泉 尹鍾心, 1793~1853)이 패수를 건넌다기에 그 편에 보낸다는 것이다. 윤종심은 바로 다산초당 시절 다산에게 강학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초명은 윤동(尹𤋮)이었다. 다산의 외척으로 초의와도 깊이 교유했다. 특히 초의의 문하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소치 허련(1809~1893)이 윤두서의 가장본을 빌려 볼 수 있었던 것은 윤종심 뿐 아니라 윤종영, 윤종정 등 윤두서 후손들과 친밀하게 교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산초당에서 공부하던 시절 서로 알게 된 이후 깊이 교류하여 다산이 해배되어 강진을 떠난 후에도 이들의 교유를 이어갔다.

한편 정학연은 초의가 어려움에 처했던 1858년에도 도움을 주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그가 1858년 전주 감영으로 보낸 편지이다. 당시 초의는 1857년 상경하여 추사를 조문하고 그 해 겨울을 추사 댁에서 머물다 대흥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초의는 대흥사로 돌아갈 비용이 없었던 터이다. 바로 이때 초의를 위해 전주 감영에 편지를 보낸 인물이 정학연이다. 그 편지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초의는 호남의 이름 있는 승려입니다. 일찍이 소문을 들어 아시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초의 노인은 바로 전주 영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곧 불러 들여 면회를 허락하시고 친히 그 곡절을 물으신다면 살필 만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말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초의를 불러 보신 후에 약간에 여비를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 병이 있는데도 상경한 것은 추사를 조문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초의의 선사(완호)의 비를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여의치 않아 가을에 돌아가지 못하고 추사 댁에서 겨울을 지내고 지금 비로소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행색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텅 비었다고 하니 가련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봉제할 것(奉提)은 불과 3~4량이면 대흥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략...草衣之爲湖南名僧 曾未聞知否 今草衣老人 方在營下 幸卽招入賜顔 親問其委折 則可諒得矣 不在多言耳 草衣招見後 略助其行費 則甚好甚好 未知如何 昨夏扶病上京者 一則弔秋史也 一則爲其先師碑刻事 而事不如意 秋間未歸 過冬於秋史宅 今始南歸 其行色囊乏一錢云 可憐可念 所以奉提 不過三四兩 可抵寺云耳)

1857년 초의가 상경한 연유는 완호 스님의 탑명 글씨를 받기 위함이고 또 다른 연유는 추사를 문상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추사가 돌아간 것은 1856년이었지만 실제 초의가 상경한 것은 그 다음 해인 1857년이다. 겨울 한철을 추사 댁에서 머물다가 다음해 봄에 대흥사로 돌아가는 길에 전주에서 노잣돈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이가 바로 정학연이었다. 얼마 후 전주 감영의 도움으로 대흥사로 무사히 돌아갔으리라 짐작되지만 이 편지는 당시 사찰의 재정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초의의 막역한 후원 세력인 추사가 돌아간 후 초의의 현실 상황도 그리 녹녹하지는 않았으니 아! 시절인연의 소중함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 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삼존불벽화에 흐르는 적멸의 美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⑦ 양산 신흥사 대광전


서쪽 벽면의 아미타여래 삼존도


동쪽 벽면의 약사여래 삼존도


팔상도 벽화 중 도솔래의상도 부분


물고기 바구니 든 어람관음 세부

서쪽 벽면에 아미타여래 설법벽화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순치 십사년(효종 8년: 1657년)에 건립한 17세기 맞배지붕의 건축이다. 동서 좌우 벽면에 넓은 화면이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내부장엄에 불교교의를 충실히 구현한 종교장엄의 특징이 뚜렷하다. 장엄의 중심에 미술을 통한 불보살의 봉안과 수호신장의 배치에 두었다. 즉 다섯 점의 대형벽화가 내부장엄의 중심을 차지한다. 맞배지붕의 구조에서 형성된 좌우 대형벽면을 단청 별지화의 미술화면으로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점의 대형벽화는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벽화, 서측면의 아미타삼존도와 육대보살도, 사천왕도, 그리고 후불벽 뒷면의 관음삼존벽화 등이다. 또 하나 특별한 벽화는 네 모퉁이 평방 위 벽면에 조성한 〈팔상도(八相圖)〉 네 점을 들 수 있다. 대광전 장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 서, 북의 세 벽면에 각각 불보살을 모신 삼존벽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존벽화를 통해 한 불전건물에 불교에서 가장 대중적인 접근성을 가진 불보살세계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구현한 특징이 있다. 몇몇의 벽화를 결집하면 하나의 탱화로 수렴되는, 분리와 해체를 통한 탱화의 재구성이라는 독특한 장엄양식도 주목거리다.

내부장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측면의 벽화들이다. 불교에서 서쪽은 극락정토의 세계로서 아미타불이 상주하신다. 서측면의 중간 벽면은 거의 같은 크기로 상중하 세 칸으로 구획했다. 상단은 아미타여래 삼존불을 봉안했고, 중단은 육대보살을, 맨 아래쪽 하단은 사천왕을 그렸다. 불보살과 수호신중의 위계에 따라 배치공간을 엄격히 달리한 것이다. 하지만 세 화면을 하나로 통합하면 팔대보살을 거느린 아미타여래도가 된다. 팔대보살을 거느린 아미타여래의 장면은 무위사 극락보전의 서측면에 조성했었던 〈아미타내영도〉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단의 아미타삼존도는 고요하고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고귀함을 갖춘 사찰벽화의 걸작이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모신 구도다. 보관에 아미타불을 모신 관음보살은 자비를, 오른손에 경책을 든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범어사, 통도사 등 국내 사찰 서너 곳에서 삼존도 벽화가 현존하지만,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고, 예술성에서도 심미성을 갖춘 독보적인 명작으로 첫손에 꼽힌다. 붉은 색과 녹청색의 강렬한 단청색채가 화려하면서도 선연하다. 붉은 색과 녹색의 선명한 색채대비는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채색기법이다. 특히 아미타여래의 법신에서 퍼져 나오는 오색파장의 광채가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답다. 오색파장의 광채는 고려불화에 사용한 주된 삼색인 녹청, 주홍, 군청 세 색채로 각각 이빛의 바림을 형형색색 풀어 반복함으로써 거룩함과 위신력, 고귀한 아름다움을 극대화 했다. 수인과 결가부좌의 자세로 미뤄봐서 아미타여래벽화는 내왕도가 아니라, 설법도형식임을 추정할 수 있다.

관음, 대세지 두 보살은 중단에 조성한 육대보살과 함께 팔대보살을 이룬다. 중단에 봉안한 육대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제장애보살이다. 아미타팔대보살도 도상은 고려불화로도 활발하게 조성되었는데 정토신앙의 중요한 관상(觀想) 및 의례의 대상이었다. 도상의 바탕이 되는 소의경전은 『팔대보살 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으로 알려진다. 경전 속의 팔대보살에는 대세지보살 대신 허공장보살을 열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팔대보살이 등장하는가의 문제다. 팔대보살은 아미타불의 화불이 팔방에 두루 편재한다는 기본개념에 근거한다. 원형은 밀교의 만다라에 있겠지만, 본질은 아미타불께서 세운 48대원의 실천에 있다. 다시 말해 팔대보살은 극락정토에로의 내영뿐만이 아니라, 중생구제의 다양한 본원력을 실행하는 실천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팔대보살은 정토신앙의 구현자라 할 수 있다. 아미타팔대보살도는 하단의 사천왕도와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아미타여래 설법장면인 아미타회상도로 귀결한다.

내부장엄 중심에 다섯 점 대형벽화
팔대보살은 아미타불 48대원 실천자
오색구름 타고 강림하는 도솔래의상
물고기 바구니 든 희귀한 어람관음도

동쪽 벽면에 약사여래삼존벽화

동측면의 대형벽화는 동방 약사여래불의 약사여래삼존도이다. 서측면의 아미타여래삼존도와 대칭으로 조성했다.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구도다. 두 벽화는 색채와 구도에서 동일하지만, 발색의 무거움으로 인해 동측면의 벽화가 보다 범접키 어려운 위엄과 근엄함이 흐른다. 석굴암 본존에 흐르는 근엄함과 적멸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두 여래의 묘사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아미타여래에선 표현하지 않은 정상계주를 약사여래에선 뚜렷이 표현하고 있는 점과 오색광채에 톱니바퀴무늬를 넣어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좌협시 보살인 일광보살은 머리 위 보관에 붉은 해를, 우협시 보살인 월광보살은 보관에 흰 빛의 보름달을 장식한다. 약사여래의 정법을 지니고 있는 두 보살은 왜 해와 달을 상징지물로 갖추는 것일까? 『약사여래본원경』에 의하면 약사여래는 과거 보살행을 행할 때 12대원을 세워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구제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약사여래의 몸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밝게 빛나서 '유리광불'로도 부른다. 약사불은 12대원을 통해 달빛처럼 맑은 빛으로 중생에게 진리의 법락을 베풀고, 해처럼 찬란한 빛으로 중생의 온갖 재앙과 어둠, 고통을 두루 비춰 소멸시킬 것을 천명했다. 일광보살의 햇빛이 중생의 무명을 밝히는 반야의 진리라 할 때, 월광보살의 달빛은 자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아미타삼존도에서 관음-대세지보살의 교의체계와 동일한 패턴이다. 그러고 보면 대광전에선 네 방위의 좌향 모두에 삼존불을 봉안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존불인 석가모니삼존불은 남향, 서쪽의 아미타삼존불은 동향, 동쪽의 약사여래삼존불은 서향, 후불벽 뒷면의 관음삼존은 북향하고 계신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구조임에 분명하다. 네 방위 모두에 삼존불로 장엄한 불보살의 대향연을 펼쳐 놓았다.

국내 유일의 팔상도 벽화

네 모서리의 평방 위 벽면에 그린 네 점의 벽화는 석가모니불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압축한 〈팔상도〉 중에서 네 장면을 표현한 벽화다. 네 장면은 동측면 안쪽에서부터 시계방향의 순서로 도솔래의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쌍림열반상을 배치하고 있다. 장면마다 흰색 바탕에 묵으로 화제(畵題)를 써놓았다. 불전 내부의 팔상도 벽화는 매우 희귀한 사례다. 이 곳 외엔 대구 용연사 극락전 포벽에 쌍림열반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 포벽화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한 부분이므로 팔상도의 표현은 신흥사 대광전이 유일하다고 봐야한다. 벽화를 조영한 회화수준은 팔상도 벽화가 가진 유일성의 의의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 화면의 공간제약에서 오는 불가피한 한계였다 하더라도 소심한 붓질의 옹색함은 내내 아쉬움을 남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장면은 마야부인의 태몽을 포착한 '도솔래의상' 벽화다. 도솔래의상은 석가세존의 탄생을 예지하는 팔상도의 첫 장면이자, 불교의 서막이다. 부처께 수기(受記)를 받아 미래에 부처가 될 보살을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이라 부른다. 석가모니불도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호명보살(護明菩薩)의 존명으로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있었다. 일생보처보살로 도솔천에 계셨던 것이다. 벽화의 장면은 호명보살이 도솔천에서 상아여섯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의 몸 속으로 하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오색구름을 타고 강림하는 모습을 단청 진채의 밝은 명도와 채도로 거룩하게 표현했다. 종교교의와 예술이 혼연일체를 이룬 고귀한 조형으로서, 서사의 성스러움과 함께 오색단청의 아름다움이 깊은 감명을 안겨준다.

후불벽 뒷면에 관음삼존벽화

후불벽 뒷면의 관음삼존벽화는 대광전 내부장엄의 정수로 손꼽힌다. 희소성, 교의성, 예술성, 전통성, 창조성 등에서 무한한 깊이와 가치를 간직한 벽화다. 관음삼존벽화는 중앙에 정좌한 수월관음을 중심으로 왼쪽에 어람관음, 오른쪽에 백의관음이 서계신 구도다. 우아하고 고귀한 분위가 저변에 흘러 보티첼리의 〈봄〉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바탕을 검게 마감하고, 형상은 흰 선으로 그린 독특한 백묘 벽화다. 관음삼존벽화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분은 맨 땅에 맨발로 서계신 어람관음이다. '어람(魚籃)'이란 말은 '물고기 바구니'라는 뜻이다. 왼 손에 커다란 물고기가 든 바구니를 들고 계신다.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남루한 차림의 변화신으로 세간에 나툰 보살이시다. 벽화는 검은 바탕에 백묘로 시문한 까닭에 문양 묘사력이 대단히 섬세하고 세밀하다. 세 분의 법의에 시문한 치밀한 문양들이 감탄을 자아낸다. 옷자락마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기하문과 넝쿨문양을 촘촘히 베풀었다. 세 보살이 가진 거룩한 대자대비의 원력을 다양한 문양으로 표출하고 있다. 문양이 곧 강력한 에너지이고 생명력의 표현이다. 벽화에서 절대적이며 숭고한 아름다움이 고요히 흐른다. 벽화에 흐르는 적멸의 미다.

〈사진작가〉



청련사 창건 119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천년고찰 청련사에서는 문헌고증을 통해 청련사의 지난 역사를 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종교적 역할을 제시함과 더불어 1200여년 동안 유지, 전승되어온 유형 · 무형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천년고찰 청련사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4월 14일(토) 14시
장 소 : 양주 천년고찰 청련사 대적광전
주 최 : 천년고찰 청련사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태고총림 선암사, 양주시청, 장흥면사무소, BTN불교TV, BBS불교방송, 한국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 푸른연꽃마을
문 의 : ☎ 031)836-243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

세미나 식순

시 간	내 용
〈입 재 식〉	▸사 회 (철오스님)
14:00 ~ 14:30	▸경과보고 (효능스님)
	▸인사말씀 (천년고찰 청련사 총무 상진스님)
	▸축 사 (내 · 외빈)
	▸축 가 (심향합창단 – 공심공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주제발표〉	
14:30 ~ 14:50	**【제1주제】"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발 표 : 이종수 (순천대학교)
14:50 ~ 15:10	**【제2주제】"양주 청련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발 표 : 유근자 (동국대학교)
15:10 ~ 15:30	휴식
15:30 ~ 15:50	**【제3주제】"조선 말기 청련사와 왕실발원 불화"**
	▪발 표 :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15:50 ~ 16:10	**【제4주제】"청련사 어산상진 계보와 성음의 특징"**
	▪발 표 : 윤소희 (동국대학교)
16:10 ~ 16:30	**【제5주제】"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발 표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전체토론〉	
16:30 ~ 17:30	▸좌 장 : 최종남 (중앙승가대학교)
	▸토론자 : 김종진 (동국대학교), 최엽 (동국대학교)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손인애 (서울대학교)

현대불교 제 1192 호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⑦ 창고와 집

내가 기억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은 얇고 담담하게 쓰여진 수필이었다.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였기에 나도 궁금해서 읽어보았다.

특별히 강하게 무엇을 주장한다기보다 스님의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다. 현대인은 무소유의 근처에도 못갈 사람들인데 무소유에 열망하다니 참으로 재미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자기가 소망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열광한다. 시장자본주의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지친 현대인이 무소유를 잠깐 꿈꿔보지만 결코 실천할 수 없기에 무소유를 대신 실천했던 법정 스님에게 열광한 것이다.

사유재산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자본주의 엔진이다. 사유재산은 인간의 이기심에 부합하는 독점적 즐거움을 준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사유경제가 아닌 공유경제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버라는 택시 서비스는 택시 회사의 차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차를 개인이 운전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자기의 차를 남과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업종이다. 자신의 아파트나 주택에 남는 방이 있으면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서비스도 확산 일로에 있다. 어떤 지인이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짐을 모두 이삿짐 센터의 창고에 보관하고 수리가 진행되는 1달 동안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하니 한국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얼마전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스님의 저서가 동이 났다. 스님이 절판하라고 유언하셨기에 기존 책이 모두 품절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구입할 수는 없었다. 내 친구가 전화를 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베스트셀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기에 친구한테 "도서관에서 빌려 줄까?"했더니 읽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소장하고 싶다는 거다. 그것도 두 권이나 필요하다는 거다. 한 권은 사돈한테 주고 한 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읽으면 됐지 뭘 소유하려고 해? 그러면 무소유가 아니야.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 무소유를 실천해야지"라고 농담을 하고 말았지만 현대인이 무소유에 열망하는 이유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시장자본주의에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형성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자기 혼자 독차지 하고 싶어하고 남이 갖고 놀려고 하면 뺏으려고 하고 안 주면 울고 떼를 쓴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 독점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므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증가한다. 물건이 많아질 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단순 소박한 삶과는 거리가 생긴다. 이사를 해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물건을 떠 안고 사는지 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싸며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이사를 간 뒤에 짐을 풀면서 또 다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 이사는 우리

인간 소유욕은 타고난 본능
선택 많아질수록 불만 커져
불교는 '소욕지족' 종교
무조건적인 무소유 지양해야

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집을 찾는다기보다 창고와 살집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넓으면 삶이 더 좋아질까? 수퍼마켓에 가면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보다 10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 후회가 더 크다고 한다. 경제가 풍요로워 질수록 더 많은 선택이 주어진다. 선택이 많아질 수록 후회가 더 크고 그 만큼 불만도 커진다. 삶이 복잡해 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면 뜻밖에도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무소유의 위력이다. 현대인은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불철주야 일하고 잔머리를 굴리기에 삶은 피폐하고 추해지고 피곤해진다. 이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무소유가 주는 자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현대인은 이런 무소유를 실천할 수 없기에 우리에겐 무소유가 금지된 것이나 다름 없지만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로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하는 법정 스님을 존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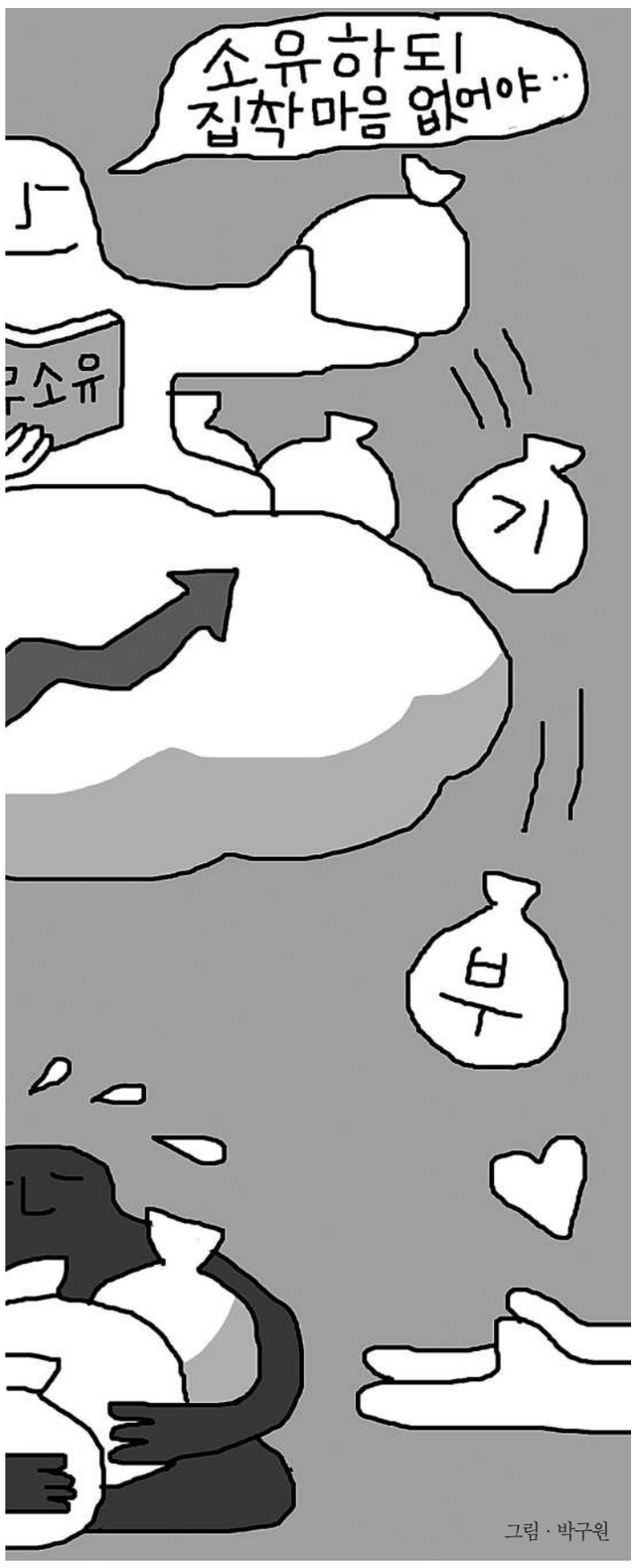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서양에서는 엘리트 청년이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시골의 평범한 직장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현상이 있다. 봉급은 형편없이 줄었지만 가난한 속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러한 현상을 자발적 빈곤이라 부른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열망하는 현대인의 심리에는 자발적 빈곤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

자이나교와 불교의 5계는 하나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자이나교는 무소유라는 구절이 있으며 불교는 이 구절 대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 조항이 있다. 원래는 불교가 4계만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되어 5계가 되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소욕지족이라는 불교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는 무소유를 지향하는 종교는 아니다. 장아함경은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마침내 줄거나 소모됨이 없으리라. 첫째는 먹을 때 족한 줄 알고, 둘째는 일을 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셋째는 먼저 모으고 쌓아, 그로써 구차할 때를 준비하라. 넷째는 밭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다섯째는 마땅히 탑묘(塔廟)를 세우고, 여섯째는 절의 방사(房舍)를 일으켜라. 집에 있어 이 여섯가지 업 부지런히 힘써, 잘 닦아 그때를 놓치지 말라. 이와 같이 그 행을 닦는 사람은, 곧 그 집에 손감(損減)이 없고,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바다가 온갖 물을 머금는 것 같으리."라고 설한다. 부처님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라고 권하신 것이다. 재산이 축적되어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벌이 꿀을 채집하듯이 일한다면 재화는 축적되어 마치 개미둑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설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재물을 열심히 모으되 일정 한도를 넘으면 안 되지만 불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되 보시를 통해 세상에 되돌려주면 된다. 재가자에게는 재물의 축적이 악이 아니지만 부처님은 출가자가 불필요하게 재물을 축적하면 안된다고 금하셨다. 증일아함경은 "만일 어떤 비구로서 능히 아홉가지 법을 성취하면 곧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재보를 쌓아두지 않고, 가사와 바리에 탐착하지 않으며…"고 설한다. 잡아함경도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지언정…"이라고 설한다. 경전을 보면 그릇의 경우 16개를 넘으면 쌓아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재가자의 경우도 재물의 축적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면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중아함경은 "만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어떤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옷에 대해서와 같이 음식, 상탑, 촌, 읍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고 설한다.

어떤 부자는 그저 돈을 쌓아두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즐거움이다.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데 오기가 창창해서 종업원에게 몇 천만원 주기 아까워서 수 억원을 쓴다. 부자가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연기화합한 결과이다. 따라서 자신의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말처럼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부가 자기 돈이지만 그 이상을 넘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맡긴 돈이다. 마윈 같은 기업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위에 언급한 오기 창창한 못된 부자의 재산은 늘어날수록 나쁜 일이다.

어떤 부자에게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었기에 충격이 컸겠지만 사실 알고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이 수천억원일까? 세금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지 손실이 나면 한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수천억원의 몇 배가 되는 이익을 남겼기에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뜻밖의 세금폭탄을 맞자 그날부터 그 부자는 끙끙 앓고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 부인이 '여보, 마음 편하게 가집시다. 세금내고도 우리는 부자인데 그까짓 것 내고 말지 왜 그렇게 끙끙 앓아요?' 라고 했다. 그 부인은 부자여도 무소유지만 남편은 무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위해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있는 재산을 버릴 필요도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소유다. 법정 스님은 선물로 받은 물건을 남에게 주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지만 사실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무소유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고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상 것이라 생각하고, 재산이 늘어나도 담담하고 줄어들어도 담담하면 그것이 무소유다.

불교 경전에는 얼핏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 두가지의 무소유에 대한 견해가 있다. '불설대견고바라문연기경(佛說大堅固婆羅門緣起經)'에 무소유에 대해 설해져 있는데 세 벌의 옷과 발우 하나를 지닐 뿐 나머지는 가지지 아니한다고 무소유를 정의하고 있다. 이런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관점이다. 삶을 단순 소박하게 유지함으로써 재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관찬경(光讚經)'에서는 무소유를 집착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얻을 수 없으니...' 라고 무소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구태여 법정 스님처럼 있는 물건을 남에게 주어버릴 필요가 없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무소유다. 그러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처럼 삶을 단순 소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우리도 자비하신 관세음처럼 살자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⑬ 천수경2

불자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굳건히 깨트려 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 흘러가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롤로코스터를 탄 것처럼 온갖 평지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은 천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탐진치(貪瞋痴) 3가지 불행한 요소를 행복을 만드는 계정혜(戒定慧) 3가지 청정하고 맑은 지혜를 배워서 고쳐보라고 한다. 3독(毒)을 3학(學)으로, 불행한 오늘을 행복한 내일로 만드는 법이다. 10가지 원력으로 보리심을 낸 불자들은 6향으로 자신을 휘어잡고 늘어지는 업장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좋은 삶의 자세이며, 동시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0원과 6향을 이미 발한 이들은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본사이신 아미타불을 오로지 생각하며 부르며 이 다라니를 외워야 합니다. 이 다라니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과 액난에서 구하는데 하룻밤에 21편이나 49편을 외우면 오랫동안 지어왔던 악업을 녹여줍니다. 부처님,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였건만 지옥이나, 축생, 아귀의 길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나, 혹은 불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였는데 현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일은 없사옵니다. 다만 착하지 아니한 자와 지성으로 외우지 않는 자는 제외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중생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북 치고 장구 치며 졸음을 쫓아가며 밤새워 외우고 만 독이네, 천 독이네 한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없거나 또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청정한 삶을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수대비신주를 한 번 외울 때마다 오색실을 한 매듭씩 묶어 24번의 독송과 24번의 매듭을 만들어 목에 걸고 독송 정진하라고 한다.

중생의 모든 SOS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 무한한 능력으로 중생의 아픔을 잊게 해주시는 대세지보살,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관세음, 뜻대로 진리를 펴시는 여의륜보살, 정법을 향해 전진하도록 돕는 정취보살, 능력이 자재한 관자재보살, 지혜가 보름달 같은 만월보살, 물에 비친 달처럼 중생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평등하게 구하시는 수월보살, 목마른 중생에게 감로수를 내리시는 군다리보살, 11개의 다양한 얼굴로 중생을 근기 따라 제도하는 십일면보살, 중생의 외로움과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 모든 보살들, 그리고 중생을 다 극락으로 부르시는 아미타불이시여. 어서 가피를 내리시어 신통한 다라니를 듣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드디어 대중 앞에 서서 합장하고 대비심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시며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즉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말씀하시니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환희하시고 모든 마왕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니 99억 항하사 부처님께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모두 광명을 감춘 몸이니 부처님이 항상 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관세음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감동하여 그 뜻에 따르고자 다음과 같이 서원한다. 이 위대하고 신통한 다라니를 외우는 장소를 청정케하는 사방찬과 도량찬을, 과거의 악업들을 참회하오니 모든 부처님들이 저를 증명하시고 반드시 구해주시길 청한다. 그렇게 시작된 십악참회는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을 절대 하지 않으며, 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혹시 다른 이를 가슴 아프게 했다면 관세음께서 다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며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불자로서 명예롭게 살겠다며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과 삼귀의를 하며 천수경은 끝난다.

〈서울 반야사 주지〉

역경 및 고난서 벗어나 성공하는 길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⑬ 금강경 제16분이 주는 메시지 1

한국 불자들은 수행하면 의례히 간화선 수행을 연상한다. 이 간화선의 뿌리는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사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말씀처럼 마음 닦아 밝아지는 핵심을 곧바로 집어내, 한달음에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돈적(頓的)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간화선 수행자는 초발심의 수행자처럼 참회도 하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성심껏 지니지만, 선지식으로 부터 화두를 받아 본격적으로 선수행을 시작하여 홀연히 마음이 열리면 점수(漸修, 점차 닦아 밝아지는 과정)의 체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화선 수행은 그 돈적(頓的) 특성 때문에 종종 그 수행의 과정이 생략되고 수행의 로드맵(Road map)이 추상적이거나 무시된다는 점에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종종 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한다. 아무리 탁월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수행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수행, 또 밝은 선지식이 이끌어주지 않는 수행은 까딱 잘못하면 전등없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방황의 수행, 허송의 수행이 되기 쉽다. 그러나 금강경 16분은 선지식이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 또는 로드맵이 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헤매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을 제시한다. 다음 금강경의 구절은 각종 수행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는 수행자들 그리고 세상살이에 흥미를 잃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 희망이 되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受持讀誦此經 若爲人輕賤是人 先世罪業 應墮惡道以今世人 輕賤故 先世罪業則爲消滅當得阿多羅三邈三菩提

비록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대를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사람 몸도 못받고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대를 받는 연고로 전생에 지은 죄업이 바로 소멸되며 마땅히 밝아지게 될 것이니라.

즉 밝아지고자 하는 모든 수행은 16분의 말씀 중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에 비유되며,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은 수행중 일어나는 각종 장애에 비유할 수 있다.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의 구절은 이런 낙심하는 수행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점에서 금강경 제16분은 각종 수행자들에게 수행 중 마장이 일어날 때 훌륭한 지침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이 가르침은,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각종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불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초년에 일찍 출세하는 사람이 말년 복이 적다는 말이 있다. 고생을 모르고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큰 재난이 당했을 때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젊은 날의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젊은 날의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운좋게 역경을 딛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한데,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은 재기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금강경 16분의 가르침은 수도인은 물론 보통 세상 불자들에게 순탄한 길에서 어째서 갑자기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원인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다 향상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영고성쇠의 사이클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참선은 진여자성 깨닫는 것"

오조홍인(五祖弘忍) 대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일이 큰일 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단지 복전을 구하고 생사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다면 어찌 복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너희들은 각기 스스로의 지혜를 모아 자기 본마음의 반야성품을 취해 게송을 지으라 하시고, 큰 뜻을 깨친 자에게는 나의 가사와 법을 부촉해 육대 조사가 되게 하리라"고 했다. 이에 신수(神秀) 대사가 밤중에 게송을 지어 남쪽 복도 벽 위에 붙여 놓았다.

신시보리수(身是菩提樹) 심여명경대(心如明鏡臺) 시시근불식(時時勸拂拭) 물사야진애(勿使惹塵埃)라고

이 말뜻은 "우리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거울에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는 의미이다. 홍인대사가 볼때는 문밖에는 이르렀으나 아직 안으로 들어와 자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공적(空寂)하고 청정(淸淨)하여 번뇌의 티끌이 낄 수가 없고, 번뇌도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텅 빈 하늘에 먹구름 처럼 홀연히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곧장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데, 닦을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글자를 모르는 육조 스님은 동자에게 청하여 게송을 지어 조사당 서쪽벽에 붙여 놓았다.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명경역비대(明鏡亦非臺)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이 말은 깨달음은 형상이 없고 마음역시 실체가 없는 공성이므로 경대(鏡臺)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름을 붙일 수도 모양을 그릴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는 본래 청정한 공적영지한 자성 자리를 드러내 오조 홍인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육조 조사가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모두 갖춘 본래불임을 단번에 깨닫게 하는 돈오(頓悟)가 육조혜능선(六祖慧能禪)의 핵심이다. 육조혜능(638-713) 대사가 어느 날 법회를 하던 중 대중에게 유일물(有一物) 무두무미(無頭無尾) 무명무자(無名無字) 상주천하주지(上柱天下柱地) 명여일흑사칠(明如日黑似漆) 상제동용중(常在動用中) 동용중수부득(動用中收不得) 시심마라 설했다.

"우리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부지런히 닦아서 거울에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즉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형상도 이름도 없으되,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며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옻칠과 같은데, 항상 동용(動用)하는 가운데 있으되, 그 곳에 있으면서 거두어 얻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고 즉 이 뭣고" 하시니, 이에 하택신회(荷澤神會)(684-758)가 제불지본원(諸佛之本源) 신회지불성(神會之佛性)

즉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이 하택신회의 불성입니다"라고 답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데, 어찌 네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신회의 불성이라고 말하는가"라고 꾸짖었다. 이는 한 물건이 일초(一秒)도 변함없이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그 놈을 찾아보면 얻을 수가 없으며,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부르면 대답하고, 욕하면 성낼 줄도 알고,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 소소영영(昭昭靈靈)한 놈이 무엇인가, 바로 그 놈을 찾는 유일한 화두가 '이 뭣고' 인 것이다. 참선은 내 안에 있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금생에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 즉 생사해탈이 목적이며, 그래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뭣고'인 것이다. 그래서 '이 뭣고' 한번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어 마친 공덕(功德)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직업 창업 교육원
약초 발효 아카데미
The Private Institute For Fermentation and Medicinal Plant
미래의 직업과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자격증 위주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교육합니다.

교 육 접 수 2018년 4월 12일 (목) 부터
개 강 일 시 2018년 4월 19일 (목) 부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교 육 과 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과정 外

자격증 분야

산야초차소믈리에	약용식물관리사	건강원창업반
전통발효교육사	천연식초교육사	전통주주조사
버섯종균기능사	장아찌교육사	천연비누교육사
발관리지도사	귀코디네이터	아로마캔들지도사

《 전국 교육원 안내 》

교육원명	주 소	연 락 처
부산교육원	부산시 서면	010-8216-8899
경남교육원	창원시 진해구	010-5576-2972
경기교육원	경기도 포천시	010-5331-6006
강원교육원	강원도 홍천군	010-8788-5550
충북교육원	충북 음성군 대소면	010-5380-2360
대전교육원	대전 대덕구 비래동	010-3405-7840
수원교육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010-8795-7490
광주교육원	광주시 북구 문흥동	010-3608-4300
용인교육원	경기도 용인시	010-4664-9788

신화 종합 불사 안내
■ 전통한옥 신축 철거 전문
■ 사찰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인등, 연등 설치
■ 9평 산신각, 요사채, 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A급. 요사채 가능 (1천 2백만원)
■ 14평 요사채. 상태좋음, 가격저렴 (1천 2백만원)
■ 60평 법당, 대중간. 가격저렴 (1억 2천만원)
■ 석탑 5~7층 다수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1천만원 세 있음)
■ 다수의 사찰 매물 있음
■ 이동식 주택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010-6545-2020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법화종 중앙종회의장에 성운 스님

수석부의장 지관, 부의장 서안 스님



(사)대한불교법화종 제19대 중앙종회의장에 성운 스님(강선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법화종 중앙종회는 3월 14일 서울 삼선동 총무원 청사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19대 의장단 선출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종회의원 9명이 투표에 참여, 기호1번 성운 스님이 5표로 중앙종회의장에 선출됐다. 기호2번 법원 스님은 4표를 획득했다. 또한 수석부의장엔 지관 스님, 부의장엔 서안 스님이 임명됐다.

성운 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중앙종회가 제 역할을 못해 종도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며 "종단 초석을 다시 놓는다는 심정으로 종헌 · 종법 제개정과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종무원 감사 등 종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운 스님은 이어 "그동안 중앙종회와 교구종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산적인 종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회의원들의 입법과 상임위 활동에 불편함 없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화종 제19대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강원사대부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서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산림과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춘천시 제7대 시의회 의원 및 산업위원장을 역임했다. 법화종서는 총무부장 · 사회부장 · 법계고시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전북불교대학 30주년 특별법회

3월 30일, 강건기 초대학장 초청 특강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강건기 초대 학장을 초청해 30주년을 기념했다.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부설 전북불교대학은 3월 31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개교 30주년 기념식과 강건기 초대학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건기 초대학장은 특강을 통해 "마음을 깨치면 부처고 그렇지 못하면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는 마음에 달렸다"며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경계를 세울 때 나와 남이 동체가 아닌 별체가 되니 구별을 지우고 동체자비를 실현할 때 진정한 부처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전북불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8년 3월 31일 문을 열어 3383명의 졸업생과 471명의 전법사를 배출하는 등 불교전문교육기관이자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으로 발돋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식문화 맛과 멋 청소년에게 전달"

Interview

한식진흥원 제5대 이사장 선재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패스트푸드 길들여진 청소년
한식에 담긴 지혜 · 정신 알려
건강한 식문화 발달에 앞장

"요즘 청소년들이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선호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인 한식이 고루한 것이라는 인식도 생겨났죠. 하지만 한식은 우리민족의 맛과 멋을 책임져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소년들이 한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 제5대 이사장에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이 4월 2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 한식진흥원 이사장을 스님이 맡은 첫 사례로, 사찰음식과 한식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는 시선이 많다.

사찰음식 명장1호인 선재 스님은 "그간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지만 많이 거절했다. 하지만 한식을 제대로 바르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며 "사찰음식과 한식이 일정부분 서로 추구하는 게 맞아 떨어진다. 건강한 식문화 발달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재 스님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한식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스님은 "흔히 동짓날 팥죽을 먹는다고 하면 액땜할 게 있다거나 그냥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지만 동지는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고, 팥이 몸 안의 냉기를 몰아내준다"면서 "몸에 냉기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처럼 한식에는 건강을 위한 선조들의 정신과 그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담겨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재 스님은 오랫동안 사찰음식 강의를 해오며 대중에게 전한 생명존중사상이 한식문화와 어우러져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님은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땅에서부터 물과 공기, 농부들의 긍지 등 수많은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대해선 안 된다"며 "자연과의 공존은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정신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재 스님은 끝으로 "한식진흥원을 중심으로 한식문화가 한류로 이어지고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식만의 발달이 아닌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사회에 알려 관련된 산업도 함께 진흥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재 스님은 1980년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봉녕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가정교육과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요리 사관학교로 불리는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 이탈리아 미식대학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찰음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조계종 제1호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문화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등이 있다.

"수계,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동국대 경주캠퍼스, 전 동국인 수계법회 봉행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전원이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4월 4일 교내 문무관에서 재학생, 교직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일반신도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 동국인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대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헌향 및 헌화, 청성(삼보를 청함), 전계사 등단, 청사(수계법사를 청함), 개도(깨우쳐 인도함), 참회, 연비의식, 귀의삼보, 선계상(계상을 설함), 계첩 수여, 정근, 발원문 봉독, 격려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전계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갈마사에는 前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성효 스님, 교수사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이 참여했다.

전계사를 맡은 자광 스님은 "계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자 영원한 극락세계로 가는 발판을 얻는 것"이라며 "수계를 받아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인생의 제2의 탄생과 같다"고 설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학교에는 기숙사를 비롯한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며 "팔정도를 일상적으로 보고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란 불교에서 재가(在家)신도나 출가(出家)수행승의 구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템봉 스님 방한, 월서 스님 만나

천호월서재단 국제구호에 감사인사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승왕 템봉 스님이 4월 5일 서울 봉국사서 캄보디아 구호에 앞장서는 천호월서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앞서 천호월서재단은 캄보디아 불교대학에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이 자리서 월서 스님은 템봉 스님에게 '수복강녕(壽福康寧)' 글귀를 써서 선물했으며, 템봉 스님은 대중을 위해 축원을 올렸다. 윤호섭 기자

광주 법륜사 가사불사 회향

스님 13명에게 신도들 가사공양



광주 태고종 법륜사(주지 월인)는 4월 1일 대웅전에서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스님들에게 새로 조성된 가사를 공양했다. 이날 회향법회는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으로 취임한 월인 스님, 호산 스님(前광주전남종무원장), 혜령 스님(율곡사 주지)을 비롯한 광주전통불교영산회 스님 20여 명과 신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3명의 스님에게 가사가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응공조계종 자비의 쌀 전달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4월 3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쌀 20kg 50포, 휴지 50팩을 전달했다.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지암 · 혜운 · 경봉 · 덕운 · 보성 · 도암 · 민철 스님 등 종도스님들과 심재충 약목면사무소 부면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죽순 콩단백 조직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피부 · 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태고종 전북종무원, 태고진묵장학회 설립

청소년 21명에 장학금 1천만원



태고종 불자들과 지역 우수 불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가 설립됐다.

태고진묵장학회(이사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는 4월 1일 태고종 전북종무원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에서 제1회 태고진묵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학부모 ·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익산 팔봉초 주동성 학생 등 21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된 태고진묵장학금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의 공약사항이다.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교생 · 대학생 50만원으로 태고종 각 사암의 추천과 지역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진묵대사의 큰 뜻을 살려 대한민국 국민이자 태고종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와 봉사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은 태고진묵장학회와 태고종보 발행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태고진묵장학회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진묵대사의 유지를 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올해 안에 법인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애불 보존, 더 이상 문제없길"

낙단보 마애사, 마애불 관리동 준공법회 열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말사인 마애사가 4월 1일 마애불 관리동 준공식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의성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김화숙 제16교구신도회장, 김동진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대회사에서 "낙단보 마애불 관리동 준공이 있기까지 성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부처님 인연공덕으로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세계가 협력으로 하나돼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앞으로 불교문화를 꽃피워 모든 고난, 재난, 병고에서 벗어나 불국정토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법어했다.

또한 준공법회에 이어 마애사 현판식 및 기념식수, 생명살림 방생기도로 생명존중 가치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애사 마애불 관리동은 지난 2010년 3월 경북 의성에서 4대강 낙단보 구간 공사 중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마애불(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2호)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33평의 부지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ㄱ' 자 민도리 한옥양식으로 건축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 문 열어

대한불교법연종이 부산본원 '연정사' 불사를 마무리하고, 남북평화통일과 한국불교 중흥기도대법회를 열어 새 출발을 알렸다.

법연종(회주 조연)은 4월 1일 부산 온천동에 새롭게 자리 잡은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법연종 회주 조연 스님과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5000명이 동참했다.

조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되 시대와 발맞춘 앞서가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포교 원력을 밝히고 "남북전쟁이란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는 2015년 10월 부지를 매입해 2016년 4월 착공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대지면적 4,582㎡(1386평), 연면적1만419㎡(3157평)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1층은 판매시설,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역민과 불자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3~5층은 법당 및 문화집필시설이며 공사비용은 총 260억이 사용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 경남, 지혜와 자비 燈 밝힌다"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준비 돌입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기2562(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 창원지역 불자들이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알리고자 연등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봉축행사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5월 1~13일, 총 13일간 펼쳐진다. 행사의 막을 올리는 개막점등식은 5월 1일 오후 7시 송상현 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는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됐지만 올해 화려한 연등을 보고 싶다면 송상현 광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통등 및 거리등, 등터널과 각종 전시등이 어둠을 화려하게 밝힌다. 장엄등은 총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무료이며 전통문화공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무차만발공양, 제34회 연꽃문화제 등이 마련된다.

봉축대법회 및 연등행렬이 진행되는 부산연등회는 5월 1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된다. 연등회는 오후 2시 집결해 전체 리허설 진행 후, 본격적인 행사 시작은 오후 4시다. 예불과 봉축연합대회 그리고 어울림한마당 이후 오후 8시

부산 송상현 광장서 연등 밝혀

울산 태화강연등축제 행사 다채

창원 진해중원로터리 장소 변경

"부처님 자비정신 널리 알리길"

부터 연등회 백미인 연등행진 시작된다. 이 자리서 부산연등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부산불자들은 봉축법요식에서 국태민안과 국가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 ·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발원한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을 출발해 부전시장, 서면로터리, 새싹로를 거쳐 부산시민공원으로 되돌아온다. 구간은 약 4.3㎞다.

(사)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남현)는 3월 30일 옥돔문화뷔페에서 2018년 태화강연등축제 봉행위원회를 결성했다. 태화강연등축제는 오는 5월 12~13일 태화강 둔치 일원(구, 태화호텔 앞)에서 개최된다.

태화강연등축제점등식은 12일 오후 8시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부처님이운행렬재연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이 화려하게 열린다. 매년 태화강연등축제봉행위원회는 부처님이운행렬을 재연하고 시민참여도 받고 있다. 시민참가접수는 태화강연등축제 홈페이지(www.ubcf.net)를 통해 하면 된다. 부처님이운행렬 재연은 오후 5시 태화루를 출발해 봉축법요식 행사장에서 마무리된다. 봉축법요식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제등행렬이 뒤이어 화려하게 도심을 밝힌다. 제등행렬 동선은 약 2.2㎞이며 행사장을 출발해 신정시장, 울산시청, 롯데사거리에서 해산한다.

그 외 연등터널 및 50여개의 화려한 연등이 전시되며 발우공양, 만등연등불사가 준비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은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시민축하공연 △불교합창콘서트 및 이웃종교합창제 △행복바라미 문화행사 △시민체험 프로그램(연등미술제 · 캘리그라피 · 종이꽃액자 · 연등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4월 3일 창원호텔 만다린에서 봉축임원회의를 열어 창원시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8일 창원시 연등축제를 진해중원로터리와 중원쉼터에서 진행키로 결의했다. 연등축제 식전행사로는 봉축문화한마당이 오후 5시에 시작하며, 연합봉축법요식은 오후 7시 봉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시 연등축제 봉축탑 등은 4월 30일~5월 22일 창원광장(시민탑돌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연꽃등은 5월 4~22일 마산합포구청 광장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은 5월 19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제등행렬은 창원광장을 출발해 상남시장, 삼일상가를 돌아 창원광장에서 회향한다.

"속환사바해 뜻을 다시 펼쳐주소서"

통도사, 야부당 초우 스님 3월 30일 영결 · 다비 엄수

일생(一生)은 도리어 봄날의 꿈과 같고, 꿈을 말하나 이 또한 몽중몽(夢中夢)이라. 임종(臨終)의 참 소식 나에게 묻는다면, 꿈 깨인 자유로운 걸음 처처(處處)에 걸림 없네. 야부 돌!



야부당 초우 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대중이 영단에 조의를 표하는 모습.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꿈을 깬 자유로운 걸음으로, 처처에 걸림이 없는 모습으로 임종게를 남기고 사바세계를 떠났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30일 제19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인 야부당 초우 스님의 영결식을 대웅전 앞마당에서, 다비식을 연화대에서 엄수했다. 영결식은 △영결법요 △행장소개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및 분향 △다비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초우 스님은 산문에 머물 때는 눈 푸른 안목과 대기대용을 갖춘 백납 운수였고, 밖에서는 이사(理事)를 겸비한 만행 보살이었다"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자운을 일으키고 진리의 법고를 울려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소서"라고 애도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초우 스님은 선과 교를 두루 겸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통도사 주지와 부방장, 총무원장 원로의원 등을 맡아 통도사와 총무원의 토대를 단단하게 했다"며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본분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고, 대중포교에 큰 자취를 남기셨으니, 우리 종도들은 스님의 자취를 따라 부단히 수행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우 스님은 유년 시절부터 마을 인근에 위치한 해인사를 자주 들러 불법의 연을 짓기 시작했으며, 1947년 봄 15세에 해인사 동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교학에 남 다른 열정을 지닌 초우 스님은 이후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운허 스님에게 수학하고 월하 스님을 법은사로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출가사문으로 선수행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1961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첫 안거를 지냈다. 상원사에서 4안거 성만과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선원과 구미 도리사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당시 스님은 전국 선방에서 '말뚝수좌'라는 이름으로 회자됐다.

1981년 제19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1984년 조계종 비상종단운영회 의장, 1988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이사장과 스리랑카 마하보디회 한국 대구지회 이사장으로 한국 불교 국제화에 포문을 연 주역이다. 초우 스님은 3월 26일 오전 6시 5분 법랍 72세, 세수 86세를 일기로 영축총림 도량의 자장매 향기 그윽한 아침, 세연을 다하고 원적에 들었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유일한 진실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
저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는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 성 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 상 (손 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비법전수 사주 강의

3개월 완성(주1회)으로 구성
비법 역학을 공개 강의합니다
장소 : 충남 논산
시외버스터미널옆 2층 /
회비 : 월 50만원
010-6473-1569 남전

밀법체험

불보살의 가피, 불광에 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예약필수)
禪 마음공부, 화두타파 검증
053-652-2714
010-9616-2477 우송 스님
묘진사 우송 합장 (대구 내당동 소재)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 (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010-2294-4747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함께 기도수행 할
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010-8620-4303

경전, 철학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인도해줍니다.
010-6536-0120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 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 60세이하)
041-673-838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기의 주인은 자기 일 뿐이다. 남이 어찌 나의 주인이 되랴 스스로 저를 잘 지키면 훌륭한 주인을 얻은 것이다.

– 법구경 –



논산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서울사찰(급)안내
- 뒷편 산사찰
- 토지 120㎡. 이층법당. 1층 요사채
- 전망좋은기도사찰. 산책로입구
- 깨끗하고 30년된사찰
- 양도 : 5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8709-5813
02)941-4247

광진사찰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서울북한산
◎ 대지 : 70평,부지 400평 ◎ 부지 : 100평 사용
◎ 합 470평 ◎ 인법당 : 약 60평
◎ 산및바다조망 ◎ 산속, 무허가건물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용전전화국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사찰(포교)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찰(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8백만원

010-8525-1959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백양산 밑 전망 좋은 곳
- 대지 45평
- 4층 건물
- 총 92평
- 가액: 5억 5천

010-9881-7363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토지 안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한옥 안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하
- 전체부지 1,100평 주택 1동
- 심야전기 보일러
- 임법당 24평, 산신각
- 종교부지 300평포함 700평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010-9113-001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소방서 앞 (100년 넘은 사찰 대지 187평,종교시설임) 이외 주차공간 넓음
- 법당20평 5년전 신축불사 하였음 산신각,칠성각,용왕당(9평), 요사채 2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81-640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 종교 부지 570평, 주차장 44평 텃밭 278평, 임법당 32평, 삼성각 10평, 창고 겸 요사채 17평
- 가액 : 이억 칠천만원 (급양도) 정남향

011-369-3859 (스님직통)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네비게이션 전화 033)744-3859번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대지:110평,2층법당29평,1층요사채35평 외 약 5평 정도 공양간 시설되었음
- 신도로와 구도로 교차로변(근처) 국민관광지역. 절 앞까지 서울시내 좌석버스 30분간격 운행중
- 가액 : 3억7천만원(융자1억 포함)
-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건물,법당, 사진,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010-9259-0108번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21평, 법당 20평, 삼성각 4평, 용왕당 3평
- 호신불당 : 소불600불 봉안
- 공양실 : 15평,종무소,주지실
- 주차장 : 3대 주차
- 창건 : 120년
- 가액 : 4억 2천만원

010-2720-15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 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2, 욕실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7,8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체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체슬라브 공양간 판넬-대지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전북경찰청.도청.아파트.상가.주택. 밀집지역.공원.천변산책로
- 대지 61평.뒷마당있음.건평90평.각30평.3층건물
- 1층.방3개해우소 / 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외부.내부 뼈대의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포교원 안내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 서울 불암산 아래
- 총평수 70여평(법당30평,종무소(사무실)20평, 주지실 및 공양간10평,세면장,보일러실,창고10평
- 별도 옥탑방 있음
- 보증금 :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 법당 및 모든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니,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3659-7071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1동 아양교지하철역 2분거리
- 3층 건물 2층. 약 50평
- 아미타삼존불 모셔져있음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가급 2천 절충 가능)
- 계약 즉시 입주 가능

010-9823-58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전철역 5분거리
- 3층 건물 80평 중
- 법당 40평, 공양간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세금 60만원 시설비 : 5천만원
- 법당 전체 단청 공양간
- 시설완벽(몸만 오시면 됨)

010-8500-00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안심뉴타운지역
- 4년째 운영중인 포교원
- 4층 70평과 옥상사용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9805-0345

흙집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1길 28-1 대원사
- 토지 : 대지 91평,건평 23평
- 법당 칠보 삼존불,소불, 방2, 주방, 수세식화장실
- 산밑,교통 좋으며,주차장 시설완벽 집기 일체 제공
- 가액 : 4,500만원

010-3911-364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 ~ 5억 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북삼
- 평수 : 21평
- 3층 상가 건물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 시설비 300만원

010-7592-054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로 ?05-10
- 법당 : 30평 3층 건물 중 2층
- 방 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7257-4242

양평 불교 동호인 마을분양
- 위치 : 양평
- 평수 : 396㎡(120평)
- 불교공부와 참선 정진하고 싶으신 분
- 제일 저렴한 땅
- 선착순 : 8명
- 양도가 : 3,700만원

010-2215-3657
(주인 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경관 수려하며 수행하기 좋은 곳
- 대지 : 1800 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창고, 콘테이너, 주차시설 아주좋음
- 가격 : 12억(확인후 절충가능)
- 전화 주인직접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10-7918-732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 3평, 기와집, 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동)
- 가액 : 3억

010-2591-473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1길 28-1 대원사
- 토지 : 대지 91평,건평 23평
- 법당 칠보 삼존불,소불, 방2, 주방, 수세식화장실
- 산밑,교통좋으며,주차장 시설완벽 집기 일체 제공
- 가액 : 4,500만원

010-3911-364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 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150년된 암자 3,000평
- 인법당, 요사채, 산신각
-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
- 가액 : 6억

010-5097-346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도심속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찰 안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 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010-4448-5998

사찰 안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면 갈산리 447번지
- 대지 : 전 343평, 종교용지475평, 임야 507평
- 건평 : 40평 1동
- 방2개,큰거실1개,주방,창고방3개
- 가액 : 5억(절충가능)

010-5403-7737

포교원 안내
- 위치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 2층(법당), 4층(거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010-6473-1569

일본인이 지킨 미얀마 佛心

반출 위기 국보급 불상 301구, 다시 미얀마의 품으로

박영빈 객원기자

내전과 군부독재기간 중, 해외로 반출될 위기였던 미얀마 국보급 불상들이 한 일본인에 의해 미얀마로 다시 반환된 훈훈한 사연이 소개됐다.

일본 쿠마노 카츠유키(68) 씨에 의해 내전과 군부독재기간에 해외로 반출될 위기였던 미얀마의 국보급 불상들이 다시 미얀마로 반환됐다고 3월 31일 '산케이 뉴스'가 보도했다.

불상을 미얀마에 기증한 쿠마노 카츠유키 씨는 2007년부터 불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산케이 뉴스'에 전했다. 쿠마노 씨는 일본에서 배관장치 제조판매사인 '일본시스템기획'을 운영하는 한편 약 10년 전부터 일본에 유학중인 아시아권의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몽골에서는 현지에 상업전문대학을 건립키도 했다. 그러다 2002년, 몽골서의 활동을 일단락하고 지인들의 소개로 미얀마와 인연을 맺게 됐다. 쿠마노 씨는 "2차 대전 중 미얀마에서 죽은 일본군이 많다는 것과 미얀마인들도 몽고반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미얀마에 대해 각별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쿠마노 씨가 불상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이후 미얀마를 매월 방문하며 교육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2005년 미얀마의 옛 수도인 바간을 여행하던 중 운전수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무너진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다. 나중에 운전수가 무너진 파고다(불탑)라고 말한 것을 듣곤 호기심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귀신의 얼굴 같은 것을 보곤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쿠마노 씨는 미얀마 불상과의 첫 만남을 위처럼 회상했다. 당시 쿠마노 씨는 불상의 강렬한 인상이 뇌리에 깊게 박혀 귀국 후에도 계속 그때의 꿈을 꿨다고 '산케이 뉴스'에 증언했다.

쿠마노 씨는 "귀신인 줄 알던 것이 탑 속에 모셔져 있던 불상이었단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불상과의 만남을 불탑을 복원하라는 계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쿠마노씨는 그 후 2012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무너진 탑과 사원, 불상들을 복원했다.

탑 복원을 위해 조사 중이던 쿠마노 씨는 불상이 비합법적으로 중국이나 태국 국경을 넘어 반출됨을 알았다. 군부가 보시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해진 절이나 스님들에게 고미술상들이 접근해 불상을 반출하고 있던 것이다.



①기증한 불상들 사이에 서있는 쿠마노 씨. ②불상을 참배하는 신자들. ③기증된 불상중에 가장 오래된 석가모니불상. 사진출처=산케이신문

미얀마는 영국식민지 시대를 포함해 몇 백년간 귀한 불상들은 도난을 우려해 절 안 깊숙이 모셨다. 그런데 이런 불상을 내놓을 정도로 사원과 스님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쿠마노 씨는 불상이 암시장에서 반출되면 되찾기도 어렵고 미얀마의 문화유산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다고 한다.

쿠마노 씨는 2007년 처음으로 밀반출되던 불상을 구입해 보호했다. 이후 차례로 반출되는 불상의 정보가 들어왔고, 당시 양곤 시내에 큰 집을 빌려서 불상을 그 곳에 숨기고 혼자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2011년 미얀마가 민간정부로 이관이 완료되고 불상을 안심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되자 불상을 공식적으로 모실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여러 기관과 사찰들과의 접선 끝에 2012년 10월 불교지도자 우 판다운타(U Pandda-Wuntha) 스님의 사원인 아웅 자부 테우야(aung zabu tawya)사원으로 불상들을 이운, 사찰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불상을 반환했다.

판다운타 스님은 "불상이 많다는 이야기만 듣고 보통 가정에서 모시는 작은 불상들이 있는 줄 알았다. 쿠마노씨의 집에 가보니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불상들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상들이 평범한 가정집에 모여있는 걸 보곤 매우 놀랐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총 301구의 불상들은 15대의 트럭에 나뉘어 사찰의 대강당에 모셔졌고 2012년 10월 18일 공식적인 예불이 봉행되었다. 전문가들의 감정과 조사 끝에 불상 중엔 미얀마 최초의 왕조인 바간왕조(11세기)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도 다수 발견됐다. 2013년 봄부터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 불상들은 차츰 입소문을 타고 '재팬 파고다'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전국과 인근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모였다.

쿠미노 씨는 "원래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시간을 정해서 공개하였으나 각지에서 몰려드는 순례자들로 거의 매일 공개하고 있다. 현재 301구의 불상을 보호하면서 천천히 참배할 수 있도록 5층 규모의 법당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고 앞으로도 미얀마 불교문화와 교육지원사업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명代 반야경 발견 경매가 최고액 갱신

한화로 300억 넘어

명나라 선덕년간(1426-1435)에 금으로 사경된 반야경<사진>이 경매에 등장해 역대 불교 경전 최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명나라 선종(宣宗)의 칙명으로 15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23억880만7500홍콩달러(한화 약 322억3400만원, 4월 5일 기준)에 입찰됐다.

미국언론 '배론스(Barron's)'는 4월 3일 홍콩 소더비즈 경매서 역대 불서 경매 최고가를 달성한 반야경에 대해 보도했다. 선덕년제 금사경은 최근 발견된 것이 없어 그 가치가 더 높고 최근 불교가 세계적으로 중흥하며 이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배론스'는 평가했다.

명나라 선덕년간 당시에는 황제의 칙명으로 성승혜진(聖僧慧進) 금으로 경전을 사경했다. 주로 화염, 보적, 반야, 열반경의 4대부경을 사경했다. 그 중에는 〈대반야바라밀경〉이 있었는



데 이 중 남은 10권이 경매에 오른 것. 타베이 고궁박물관에 소장중인 〈대보적경〉과 〈대열반경〉을 제외하고 선덕년제 금사경이 최근에 발견된 것은 거의 없다.

이번에 발견된 경전은 양뇌전(羊腦箋)에 금니로 글자가 써 있으며 필체가 깔끔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듯 수려하다'는 평을 받았다. 양뇌전은 종이의 종류로, 쪽물을 들인 종이를 다시 한 번 가공한 중국 황실 전용 종이다. 명나라때 시작됐으며 보통 사경할 때 사용됐다.

경매를 주관한 소더비는 17%년부터 정기적으로 경매를 진행돼온 고서적, 미술품 대표 경매처다. 소더비는 이 작품의 구매자를 밝히지 않은 한편 "이번에 고가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불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요즘 아시아 문화권의 골동품이 비싼 값에 경매되고 있는 추세기도 하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문화와 불교가 미국서 인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요즘의 예술 시장은 거의 아시아권이 주름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조동종 첫 백인 여성 禪師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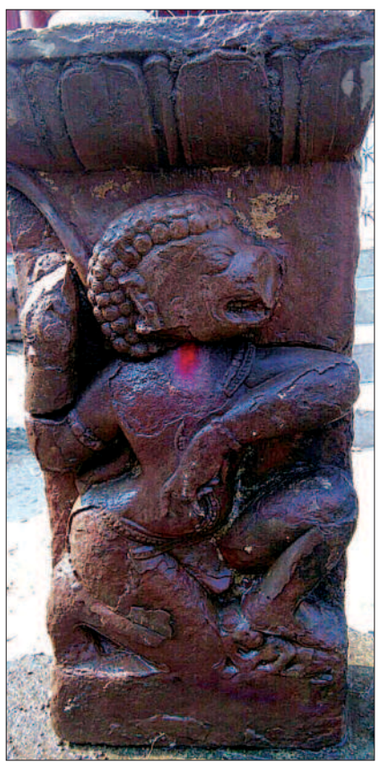
일본 선불교 중 가장 중요한 사찰로 꼽히는 에이헤이지(永平寺)사찰서 일본 첫 서양 여성 출신 선사(禪師)가 나왔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4월 3일 첫 서양 여성의 선사(禪師)가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백인인 조앤 할리팩스(Joan Halifax) 스님<사진>이다. 할리팩스는 에이헤이지서 불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할리팩스가 선사로 선정된 된 에이헤이지는 일본 선종의 가장 큰 학파인 조동종의 총본산이다. 에이헤이지에는 현재 2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일본서 가장 큰 선불교의 교육장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박진형 기자

사자 얼굴 여성본존 인도서 발견 '화제'



8세기경 밀교불상 추정 후속 연구 진행되고 있어

동인도 오릿사(Orissa)주의 삼발푸르(Sambalpur)에서 인도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8세기 경의 밀교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3월 25일 '오릿사 포스트(Orissa Post)'가 전했다.

인도 미술문화유산 재단(INTACH)은 삼발푸르시의 자르수구다(Jharsuguda) 구역에서 최근 희귀한 밀교불상인 심하무카 다키니(Simhamukha Dakini) 불상<사진>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심하무카 다키니는 사자얼굴을 한 여성본존을 말한다.

발굴된 불상은 돌로 조성됐으며 발굴 당시 목과 몸이 분리돼 있었으나 형체는 거의 원형에 가까웠다. '인타크(INTACH)'의 연구임원인 디팍 판다(Dipak Panda)는 "이 불상은 재단의 발굴팀이 자수르구다 계곡의 고고학 조사중에 발굴됐다. 현재 건설 중인 자르수구다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불상의 도난과 추가발굴을 위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재 학자들이 후속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판다 연구원은 "심하무카 다키니의 발굴은 이 지역이 고대에 인도에서 불교가 흥성하던 곳이란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쓰는 발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상이 발굴된 삼발푸르 지역은 고대 문헌과 최근 연구조사에서 티베트에 처음 불교를 전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hava)의 주요 활동지로 밝혀졌다. 또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을 따르는 티베트 불교의 닝마(Nyingma) 종단이 심하무카 다키니의 수행법을 현대에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굴은 특히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인타크'는 "이 지역엔 고대의 조각품들이 다수 매장돼 있다. 지금껏 우연히 발견되거나, 공사 중 출토된 조각들은 모두 지역 사원으로 옮겨졌다. 힌두사원에서 불상들은 힌두교의 신상으로 오해되어 모셔지고 있기에 더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6세기 중반에 지역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면서 발견된 불상과 신상들에 대한 현대 고고학적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판다 연구원은 "고대 문헌에 파드마 삼바바의 출생지를 우디야나(Uddiyana)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이를 오릿사의 어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오릿사주야 말로 고대 인도불교의 중심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서구학계는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타크'는 현대 파키스탄의 스와트(Swat) 계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이 불상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정밀한 연구와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방법만 다를 뿐 깨달음은 동일하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4) 왜 자비선(慈悲禪)인가

인공지능 위험과 그 치료제

또 미래의 인류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AI)이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 판단한다. 그래서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고 게임을 하더라도 전략을 짜서 이기기도 한다. 자기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와 로봇 등이 봇물 쏟아지듯 등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최첨단 기기들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인류에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입증한 실험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인 IO액티브는 일본 최대 IT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제작해 이미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나오(NAO)' 2대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실험했다. 랜섬웨어란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실험결과 IO액티브는 나오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랜섬웨어 공격에 성공했고, 연구진은 이후 나오가 보인 반응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만일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섬멸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전투로봇이 피아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대량살상이 가능하므로 인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자비를 프로그램화하여 심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자비명상프로그램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비선 명상수행의 목적은 명상수행을 통해 대비심을 일으켜 그 이타심으로 지각 있는 존재를 돕는 것이다. 즉 고통 받는 중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보리심이며 자비선은 바로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명상수행방법이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 생기며, 보리심의 뿌리이다. 그래서 자비는 중생을 구제하는 명상수행의 바탕이며 수단이며 깨달음이다. 자비는 우주만물의 모든 것들의 관계를 서로 소통시킴으로써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비는 연기와 공성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자비심과 자비선명상프로그램을 심는다면 온 지구가 평화와 안녕으로 가득찰 것이다.

자비선은 자비심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일으키는 자비수관(慈悲手觀), 공성을 아는 마음을 관찰대상으로 하는 자비공관(慈悲空觀), 걷기선(禪) 명상인 자비경선(慈悲鏡禪),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차명상인 자비다선(慈悲茶禪)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비선 명상

1) 모든 명상의 원리

모든 명상방편은 각기 모양만 다를 뿐 원리는 모두 똑같다. 즉 환으로써 환을 닦는 이치이다. 〈원각경〉 '보현보살장'에서 비유하기를 "두 나무를 서로 비벼 생긴 불이 그 불을 만들어낸 나무를 다 태워 나무가 재와 연기로 사라지듯, 환(幻)으로써 환(幻)을 닦는 것 또한 이와 같다"고 한다.

두 나무는 관찰대상과 그 대상을 관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직접인식인 직관과 추론의 분석이다. 사마타, 위빠사나와 그 대상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불은 바로 지혜이다. 불을 지혜로 표현하는 것은 법구경 주석서에 산불을 경책 삼아 아라한이 된 비구이야기가 있다.

"불길이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을 태워버리듯이 나 또한 고귀한 도(道)의 지혜라는 불로써 크고 작은 모든 족쇄와 집착과 번뇌와 욕망을 다 태워버리면서 나아가리라."

이 지혜의 불에 의해 주관과 객관이 같이 소멸한다. 이 자리가 곧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일 줄 아는 깨달음이다.

사마타도 남방 빠알리 전승과 북방 산스크리트 전승의 같은 점도,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한 대상에 대하여 집중명상하는 것이다. 다른 점은 빠알리 전승의 사마타는 즉, 〈청정도론〉에 40가지나 있다. 그 중 하나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둥근 원판을 앞에 두고 심상(心像)을 만들어 그 심상에 집중하여 선정을 얻는 것이다. 반면 산스크리트 전승의 대승 사마타는 공성을 알고 있는 위빠사나 마음이 집중 대상이 된다.

보리심 뿌리인 자비수행 자비선
자비심을 키우는 데 주안점 둬
幻으로 幻 닦아 깨달음 얻듯이
주객 없는 본성 보는 원리 같아

위빠사나에도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남방 빠알리 전승의 위빠사나는 신수심법(身受心法)을 정념으로 관찰한다. 첫 번째 위빠사나 지혜는 몸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이 다름을 관찰하여 알고, 두 번째 지혜는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 일어남과 사라짐을 구분하여 아는 등 이러한 알아차림으로 삼법인을 관찰하여 열반에 이르는 16단계의 위빠사나의 길이 있다. 단지 알아차림하여 즉각 구분하여 아는 것이다. 머리로 헤아려서 아는 것이 아니다. 반면 북방 산스크리트 전승의 대승 위빠사나는 사마타 삼매를 의지하여 몸과 마음의 결합인 오온을 분석하여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즉 머리로 분석 사유하는 것이다. 대소승이 모두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통하여 환으로써 환을 제거하여 주객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동일하다.

2) 지관 응용과 돈오법

첫째는 사마타[止]를 선행한 뒤에 위빠사나[觀]를 닦는 것이다. 둘째, 위빠사나를 선행하고 난 후에 사마타를 닦는 것이다. 그러나 위빠사나만 명상하거나 사마타만 명상하게 될 때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셋째, 사마타를 성취하고 사마타 삼매를 의지하여 오온인 몸과 마음을 분석하여 공성을 드러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다[止觀雙修]. 이 때 더 이상 분석하려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위빠사나 삼매를 얻는다. 사마타 삼매와 위빠사나 삼매와 하나가 되면 곧 공삼매(空三昧) 또는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 이 삼매 속에서 일어난 무분별지혜에 의해 법계 평등의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간편하고 빠른 명상법은 법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깨닫는 네 번째 방법이 있다. 초기경전에 보면 붓다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이들이 많았다. 이 방법은 조사선(祖師禪)의 즉각 깨닫는 돈오법(頓悟法)이기도 하다. 다만 붓다의 언구는 활대와 같이 자비롭지만 조사의 언구는 활줄과 같이 곧아서 직설이 특징이다. 그래서 조사의 언구아래 곧 바로 깨친다는 것이다. 조사의 언구(법문)가 질문자의 말과 생각을 여의게 하고 주객의 환이 사라진 마음의 본성에 곧바로 들어가는 돈오법이라는 것이다. 말과 생각을 여의게 하고 주객이 없는 본성을 깨닫는 것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통한 깨침의 원리와 같다. 조사선의 돈오법을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자비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사선은 돈오법이다. 즉,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사람의 마음을 곧게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다. 〈육조단경〉에서 혜능 스님도 '불사선불사악(不思善不思惡),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리하면 마음의 본래면목이 드러난다' 고 했다.

본래면목인 마음의 본성은 열반(涅槃), 원각(圓覺), 진여(眞如), 보리(菩提), 법계(法界), 심광명(心光明), 청정심(淸淨心)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의 가르침에서도 무저발(無底鉢), 몰현금(沒絃琴), 무진등(無盡燈), 무근수(無根樹), 취모검(吹毛劍), 심월(心月), 심광(心光), 심인(心印), 심경(心鏡)이라고 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뜻을 가진다.

그것은 본래 그러하므로 조작이 없다. 조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굳이 공을 관하거나 선정에 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 생각, 허망한 생각[妄念]은 잘못된 기억이다. 마음의 본성인 본래면목은 이런저런 분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아 깨닫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전생에 선정과 지혜를 닦은 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혜능선사와 남악회양선사의 대화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육조: 어디서 왔는가?

회양: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회양 스님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8년만에야 홀연히 깨치게 된다. 돈오법은 즉각 깨달음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육조 혜능 스님과 마조선사시대에는 말 한마디에 즉각 깨닫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지식아! 법에는 돈점(頓漸)이 없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미혹한 사람은 점점 계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닦느니라. 스스로 본마음[本心]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본래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긴 세월동안 윤회하는 것이다"라고 혜능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다. 그래서 후대로 내려오면서 무심(無心) 공부하는 여러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수행을 무심공부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초조(初祖)로 불리는 보리달마(菩提達磨)는 제자 혜가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단외식반연(汝但外息攀緣) 내심무천(內心無喘) 심여장벽(心如牆壁) 가이입도(可以入道) 네가 다만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사과를 심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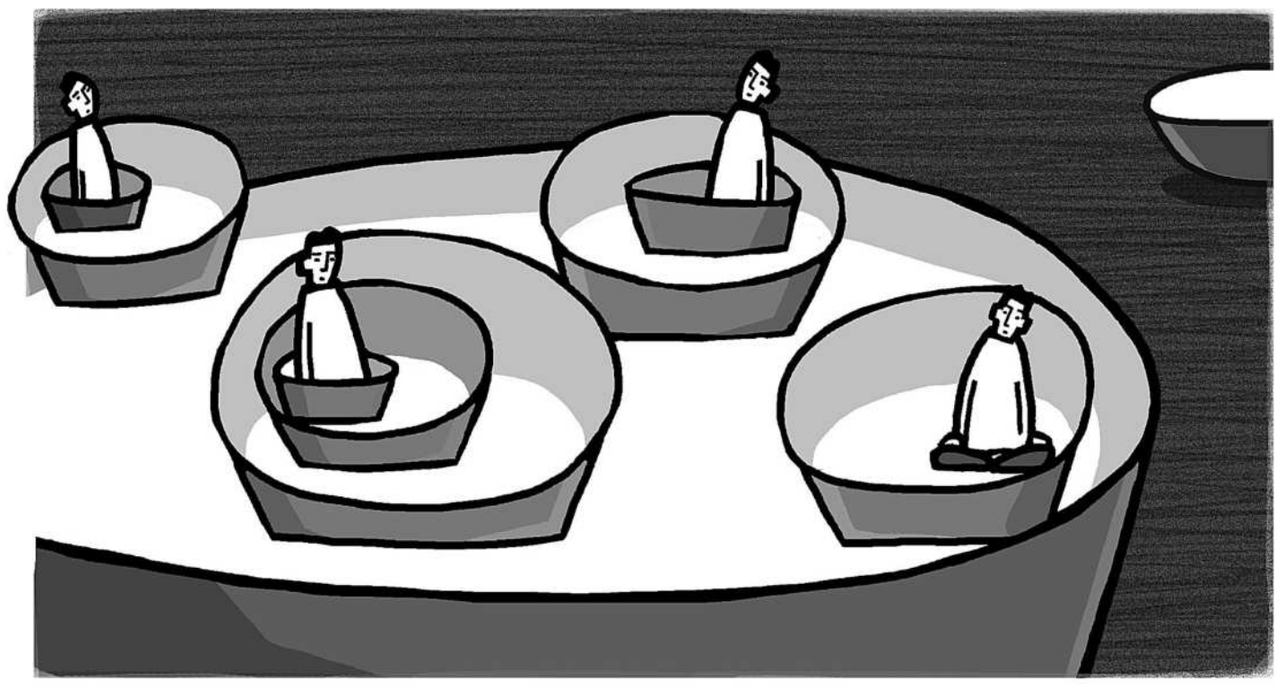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스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정말 만나기 힘든 선지식을 모시고 이렇게 법문을 항상 듣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모르면 제자들이 두 번, 세 번, 열 번 질문하는 것을 경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법을, 한마음의 법을 설법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질문하오니 관대하신 설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불교라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경을 통하여, 또는 참선을 통하여 깨닫는 줄 알고 오늘날도 명산대찰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스님께서 바로 우리 가슴에 와 닿고 바로 깨치는 공부, 즉 한마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국내는 물론이고 현재 구미(歐美) 지역에까지 일대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구미뿐만 아니라 큰스님의 높으신 뜻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한마음 법이 번져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차제에 새로 오신 신도님들도 많고 아직도 한마음의 법이 얼마나 훌륭한 법인가를 분명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한번 다시 명확하게, 분명하게 한마음의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고 계시니 가섭이 혼자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죠. 그걸 전하고선 그 만좌중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그 만좌중 속에, 그 만민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꽃을 들고? 우리는 모두가 이어짐이 없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몸뚱이로 지금 사회에 나가 사시지만 회사에도 회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회장이 없습니다. 전부 상대성으로서 삽니다. 먹고삽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윗사람 말을 들어야 하고 아랫사람들을 지도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도 그런가 하면은, 염화미소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이건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디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삼천 년 전에 그 불바퀴가 우주에 돌아간다고, 삼천대천세계에 그 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블랙홀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미리미리 그렇게 일러 주셨건만 지금까지도 그거를 해득을 하지 못해서 참 모두들 야단들입니다마는,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수만 마디를 하고, 수만 마디를 듣고, 수만 가지를 보고, 고정됨이 없이 그냥 먹고 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입니다. 그 한마음이 뭉쳐졌기 때문에 그게 불바퀴입니다. 이게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법바퀴예요, 네? 그래 불바퀴는 앞뒤 없는 불바퀴를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바퀴는 생각을 내는 바퀴요, 불바퀴는 생각을 낼 것도 없이 더하고 덜함도 없는 자린데 법바퀴가 그대로 거기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은 크고 작은 게 없으나 큰 회사에서는 크게 끌어 쓰고 작은 회사에서는 작게 끌어 쓰고 일반 집에서는 또 그대로 끌어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끌어 쓰는 그 자체를 바로 법바퀴라고 하고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 누가 그거를 하고 누가 쓰고 그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속에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중생들이 많으니 그 의식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미산처럼 많습니다." 하니까 "그래, 어쩐 일로 수미산같이 그렇게 많으냐?" 하니까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 그것은 너무나 헤아릴 수가 없이 크고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 무지렁이같아도 부처님이 해 놓으신 말씀을 보면은 벌써 이것이 탁 뛰어 올라와서 이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책장 한 장만 들쳐 봐도 벌써 그 책 한 권의 뜻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암 스님도 경허 스님도 그러셨답니다. 책을 보다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건질 수 없다 해서 책을 덮어 놓고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마음의 수련을 쌓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련을 쌓아 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그러면 내가 수련을 쌓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항상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왜 해골바가지 모인 데다가 큰 절을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떻게 하치못한 그 해골바가지에다가 절을 하시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못마땅했죠. 하나 부처님께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느니라. 저 뼈다귀는 바로 과거면서도 미래에, 미래면서도 현실에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저 뼈다귀가 누구 뼈다귀인 줄 아느냐. 우리 부모의 뼈다귀일 수도 있고 다 그렇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말 이렇게 심오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한 줄을, 부모가 둘이 아니고 자식이 둘이 아니고 형제가 둘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울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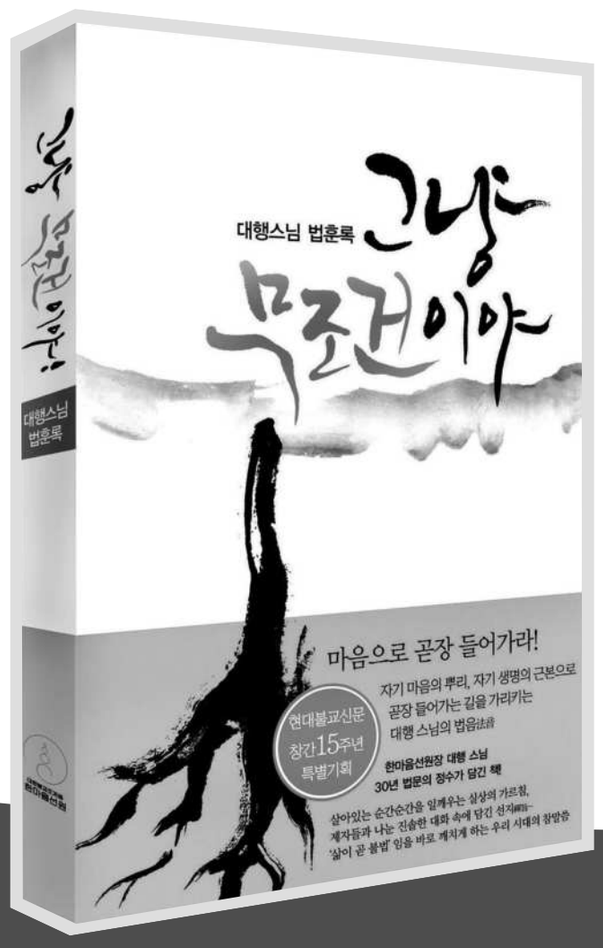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올 때에 무척이나 쫓기고 쫓고 이러다가 진화돼서 사람이 처음 나니깐, 모두 보니깐 나무, 물 뭐, 전부 정원이라고 합시다. 다 생겼는데 자기는 맨 나중에 나와 보니까 상대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불도 알아지고 망치도 알아지고 뭐, 칼도 알아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알아졌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단군이라는 분이 출현하셔서 농사짓는 법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도리, 충성, 효도 등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거를 전부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단군께서 천부경 여든한 자(字), 팔십일 자를 남기고 가신 후에 부처님이 나셔서 또 그 팔십종호(八十種好)를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님이 하나도 없고 우리 형제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잘못되고, '아주 저건 못쓰는 사람이야' 이럴 때도 '아, 저것이 몰랐을 때의 내 모습,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나는 저거보다도 더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아, 저것이 모를 때 내 모습이지.'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도 미울 게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머무르지 않는 법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을 내랬지 머무르는 데서 생각을 낸다면은 바깥으로 끄달려서 그 바깥세상의, 유(有)의 세상의 노예가 되고, 반면에 또 바깥의 거를 하나라도 무시하고 돌아간다면은 그거는 또 무(無)의 세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참 차근차근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바로 자기 자연의 불성(佛性), 그 자체를 아비라고 친다면 아비가 있다는 것을 아비가 증명을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사량으로 있다 없다를 논의하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게 되겠죠. 자기 아비를 찾으면, 발견하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곧 아르헨티나에도 지원이 생길 겁니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딥니까? 콜로라도인가? 거긴 세계 사람들이 전부 공부하러 모이는 데입니다. 또 뉴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또 오하이오 주, 시카고, 앵커리지 이것만 해도 벌써 아홉 군데가 됩니다. 이거를 한번 돌려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먼 거리라 지원에서 지원으로 오고 가는 데만도 하루씩 걸리니 제대로 볼일 보고 다니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될 거를, 바쁘니깐 그냥 밤에도 차 타고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쁘게 돌아쳐도 한 달 며칠이 걸렸습니다. 40일.

그러는 도중에 여러분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처음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아주 발버둥이 치고 야단들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지 보고 싶어서 그 참, 눈에 아롱거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롱거린다고 해서 착을 두지 말고 아른거리면 '아, 보고 싶구나.' 그러고 '응, 둘이 아닌데.' 하고 '둘이 아닌데'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자기로 돌립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오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보배가 나한테 있으니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 A17면에서 계속

래 나갔다 오면요, 둘 아니면서도 땅도 한 땅이고 도량도 한 도량이면서도 너 나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 싶다 해서 또 걸리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거고, 허허허, 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고 이렇게 그냥 슬슬슬슬 그냥 넘어가라 이거죠.

기름을 치지 않는다면은 기계가 빡빡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항상 넉넉히 치면서 항상 손질을 하면서 저절로 굴러가게, 자동적으로 생각만 했다 하면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면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을 여여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그대로 실상임을 아실 겁니다. 고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 오면서 '신행회장을 많이 배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행회장을 배출함으로써, 그러고도 또 이 도리를 마음에다가 그저 모르든 알든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거기다가 죽으나 사나 맡기고 가는 사람이라야만이 그 회장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생동생동한 사람을 회장을 시키면 그 회원들이 다 생동생동해질 테니까. 하하하.

그래서 학승으로 은사를 맞이한 사람은 꼭 학승이 되거든요. 부전승으로 오신 인연은 꼭 부전승 제자가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화가승으로서 제자를 둔 사람은 꼭 화가로 나섭니다. 난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헤어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랬고, 나는 또 떠돌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됐고요.

그러니깐 그게 무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행회장을 많이 배출해서 마음공부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볼 때, '왜 그렇게 다양하게 늘어났나.' 그러고 '그 신도들이 전부 벌어먹고 살게 돼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행회장을 뽑아서 삼십 명 단위로 이렇게 맡겨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삼십 명이든 사십 명이든 좋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 도리를 몰라서 갈구하는 사람들을 자꾸 뽑고 또 단위를 넓히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형제 법회를 따로 만들어서 첫째 일요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데 합쳐서 뭉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뭉쳐서 거기서도 신행회장을 뽑아서 삼십 명 단위로 나누어서 공부해 가면, 식구가 적다면은 서로 토론하기도 쉽고 아주 좋죠, 다양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을 도와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신행회장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아주 가난해서 학자금도 못 내는 사람들은 학자금도 우리가 거둬서 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캠핑을 와서 한자리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질 것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형제 법우님들 모인 장소에 전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는 반드시 같이 모이게끔 하시고요.

청년들도 첫째 일요일에 모일 때 한쪽에, 저 방이 작으면 여기서라도 같이 한쪽에 청년 법우님들도 같이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미루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린 국민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잘해 나가야 청소년 애들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싹을 내서 실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을 위해 '영원의 나'를 갖다가 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교재로 해서 주되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을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니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서독에도 그렇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 불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디를 나서도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이 미래의 세계에 우주의 그 법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있다' 이런 아집을 버리시고 그대로 해 나간다면 우주정거장도 허가를 내서 세울 거 아닙니까.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거든요. 예? 아, 웃을 게 아닙니다. 허허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부처님이, 그 보살이 참, 법을 전달해서 그렇게 되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부진하면 '아,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 하면은 벌써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거지 같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못났어도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 잠시 대통령 돼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귀찮을 텐데. 안 그럽니까? 하고 싶으면 대통령도 돼 보기도 하고 미래 세계의 지배인도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 안됐지만 이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도리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것이 반야심경에도 속해 있고 금강경에도 속해 있고 화엄경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실상을 찾고 발견하려면 나를 먼저, 미래 세계의 그 법계의 법을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전화도 뭘 끼워 놓으면 사람이 없을 때 전화가 와도 다 녹음이 된다고 합디다. 그러고 팩스도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상대 쪽에 전달돼. 팩스뿐이 아냐.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는 지금 전파를 위성을 통해서 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한테 간섭도 안 받고,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귀찮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네? 억울하면 공부하세요, 모두. 하하하.

못살고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거 억울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시고요. 못난 것도 한 찰나고 잘난 것도 한 찰나니까 그런 걸 다 그저 묵살시키시고 이 도리를 배우는 데 전념을 다하세요.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은 지금 도시락 싸 가지고 캠핑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허허허.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더래요.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주장자에 사탕같이 꿴 그거를 하나씩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다 들고선 들어가야만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를 쓰고 증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애를 쓰지도 말고 애를 안 쓰지도 말고, 그냥 생활하는 데서 여여하게 돼 가는 대로 '이것이 바로 내 한마음, 이 한마음 의식, 한마음으로 주인공,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주장자 이것이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끌어 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뭐 걱정이야. 보배가 나한테 있는데.' 이럭하고선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사과를 심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따가 요 시간 지나면 내가 저 아래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겁내고 살아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은 꼭 해야 되니까요. 뭘 그걸 두렵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내가 살아. 내가….' 이러니깐 그냥 두렵고 모두가 그렇지, 내가 한다는 게 붙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깜깜한 그믐밤에 글쎄, 그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춘천 골짜기 물 내려가는 쪽으로 거길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그,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깟놈의 거 뭐 그게 두려워? 다 와라. 뭐가 있다면 다 와라.'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깐 글쎄,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도 목신이 있는 겁니다. 아, 인사를 깍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벗이 돼서 좋아서 말입니다, 나도 그 밑에 앉아서 혼자 싱그레 웃고 혼자 중얼거렸으니, 누가 봤더라면 '저 사람 미쳤군.'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미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산중에 올라왔을까?'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산비둘기 울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능생이 울음소리, 새소리….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그러고 그냥 싱긋이 웃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친구들이고 벗이었어요. 도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의 세계에 그 지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부처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배인이죠. 그리고 지배인이 한자리 한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용어를 붙여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이거 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때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는 이따가 죽든 내일 죽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하는 대로요, 죽든 살든. 그거를 배우세요. 내가 죽든 살든 이따가 죽든 이따가 엎드러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다면 가루가 되더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니까 가루도 될 게 없습디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서나 나가서나 일하시면서나 항상 평상시가 그냥 참선이며 마음 편안하고 넉넉하면은 그게 좌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중 속에서 스님! 건강하십시오.

큰스님 자기도요. 허허허. 어떨 땐 날더러 건강하라고 하고 가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죠. 그럴 땐 "에이, 너나 건강하게 좀 가져가거라." 그러면서요, "에이, 네가 건강하게 살면 내가 편안할 텐데 오히려 날더러 그러고 가니 저거를 어떡하면은 좋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날더러 또 "성불하십시오." 그러고 간다고요. 하하하. 이게 뭐,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소리 들을 때마다요, 기가 막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절을 하죠. 그러면 나한테 절하는 건 줄 알아요. 벼이삭도 익어야 자기가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글쎄, 나더러 하는 건 줄 알죠. 내가 오히려 대신해서 그저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앉아 준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야죠. 나는 그냥 죽어 나는 거죠. 그 절 받는 게 뭐 그렇게 좋아서, 절 받는 게 내가 받는 게 아니면서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이나 하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거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겠습니까?

전에는 하루 종일 밤이나 낮이나 이랬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굴었죠. 지금은 오히려 지원이 많이 생겨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데, 가면 뭘 합니까? 거기 가서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허허. 한 분이 오시나 두 분이 오시나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둘이 아닌 까닭에 그 자리를 비워 놔두면은, 급해서 애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없으면 어쩌나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겁니다. 요새는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가 한 달에 두어 번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나와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건강하십시오.

바로 자기 자연의 불성(佛性), 그 자체를 아비라고 친다면
아비가 있다는 것을 아비가 증명을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사량으로 있다 없다를 논의하느냐 이겁니다.



※위 법문은 1991년 4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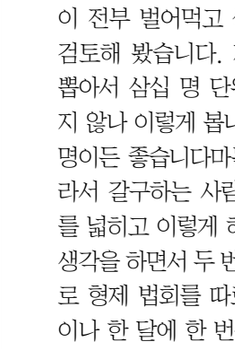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 (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 현불 논단 |

남북 불교 교류, 통일로 가는 길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1991년 美서 열린 법회 기점으로
南北 불교계 본격적인 교류 시작
신계사 · 영통사 복원 등 활발 추진
2008년부터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예정
현재 예술 · 체육 분야서 다양한 교류

불교계 통일 종책과 불사 준비해야
학계, 통일과정 갈등 극복 연구 필요
南北불교 교류는 통일 토대의 '지류'

고려시대에 판각된 3종류의 대장경 중에서 교장(敎藏)을 판각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대장경 편찬은 천 년의 지혜를 정리하여 천 년의 미래로 전해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의천이 꿈꾸었던 미래의 1000년 중의 한 세대인 우리들로서는 부끄러움이 크다.

그 이유로서는 1600여 년의 불교역사를 간직한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67여 년 동안 남과 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인도 · 중국을 통해 전개된 불교의 사상과 철학, 우리만의 문화와 예술 등의 흔이 단절되어 서로 융회(融會)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도 1991년 10월에 미국 LA에서 진행된 '남북해외불교지도자 조국통일기원법회'를 시작으로 남북한 불교계는 다양한 법회와 불사들로 북한과 교류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측에서는 조불련 위원장이었던 故 박태화 위원장이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8.15 남북공동행사에, 2003년에는 황병준 부위원장이 봉은사에서 개최된 3.1절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에, 2006년에는 정서정 서기장이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각각 참석하여 남북간 불교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북측에 금강국수공장(1998년, 평불협), 금강산 신계사 복원(2004년, 조계종), 개성 영통사 복원(2005년, 천태종) 불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은 부처님오신날에 '남북공동발원문 채택 및 동시 낭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남과 북의 교계 및 단체들은 금강산과 해외에서 다양한 교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류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전면 중단되었다.

올해는 지난 9년과는 달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일환으로 현재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불교계와 학계 또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천년의 불교를 위하여 남과 북이 민족의 동일성과 일불제자라는 마음으로 통일 종책과 다양한 불사들이 준비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불교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계와 학계 및 단체들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진정성과 신뢰로 남북의 교계 · 학계 · 사찰 · 신도회가 서로 지류(支流)로서 교류하였으면 한다. 이 지류들은 언젠가 본류(本流)라 할 수 있는 통일의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계, 학계 및 단체들의 지속적인 지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계에서는 △불교의 4대 명절에 남북공동법요식 봉행 △남북한의 승가교육 교류 △신계사 운영정상화 노력 △불자들의 교차 성지순례 교류가 필요하다.

교계와 문화 · 예술계에서는 △폐사지 발굴조사 △불교문화재 및 문헌들에 대한 공동학술연구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사업 진행 △불교의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불교학계에서는 김일성대학교 종교학과 및 민족문족문화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 교류, 각 불교단체들에서는 단체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이들의 남북교류는 어떠한 장애에도 인욕과 자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류들의 불사들이 언젠가는 본류가 되어 통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社 說

장애인 신행공동체 구축하자

4월 5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는 불교계에서 시금석이 될 제막식이 이뤄졌다. 바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도인 '촉지도'가 세워진 것이다. 조계사의 이러한 행보는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불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16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251만명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하며 감쳐왔던 '장애'를 드러내는 사회 분위기가 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부처님 십대제자 중에는 천안제일로 불리는 시각장애인인 아나율 존자가 있었으며, 아라한과를 증득한 지적장애인인 주리반특이 있었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었다.

현재 불교계에는 다양한 장애인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케리어, 전자 안내판 등이 그 것이다. 그 이면에 장애인들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신행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조계사에는 원심회라는 장애인 수화 모임이 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법회도 보는 곳이다. 불자장애인 문인 모임인 보리수아래 모임 또한 조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임이 각 사찰에서 생겨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하나씩 장애를 지니고 있다. 이제 불교계는 장애인들이 함께 수행하고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와 공간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등회, 인류유산 등재에 만전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연등회는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했다고 한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등회는 중지됐지만, 민간에서는 민속행사로 남아 호기놀이 등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근현대에 들어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 어울림마당(연등법회) · 회향한마당(대동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축제다. 지금도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도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연등회 행사와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불교계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 연등회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2020년에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전할 수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한일불교協, 화합이 필요하다

1977년 한일 양국불교계의 불교진흥과 우호친선을 위해 발족한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최근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예산 축소와 불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 악재가 겹쳐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의회 이사인 불교총지종은 3월 29일 법인사무처에 탈퇴 공문을 보냈다. 탈퇴 사유는 이사장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정기총회서 총지종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부회장 승격 요청을 이사장 직권으로 거부했다는 게 요지다. 실제 홍파 스님은 2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서 "총지종은 협의회에 공헌한 바가 없고, 참여도도 좋지 않다. 총지종의 부회장 승격 요청은 이사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총지종은 이 같은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듯 회의에 불참했다.

총지종은 前통리원장 법등 정사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마쳤고, 그간 협의회 주최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서도 부회장으로 승격한 총지종이기에 반발은 거셌다. 공문에서도 "홍파 스님의 왜곡된 사고와 독단으로 종단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며, 총지종은 앞으로 회원종단으로서 더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해 탈퇴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총지종 측이 협의회 탈퇴를 '가장 약한 수준의 대응'이라고 표현할 만큼 홍파 스님과 총지종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기자는 홍파 스님에게 공헌에 대한 기준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진 못했다. 다만 홍파 스님은 "내 발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래도 탈퇴까지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 화합을 위해 총지종과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총지종이) 편치 않았다니 생각해볼 일이지만 기자와 긴 얘길 하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총지종의 탈퇴는 협의회 회비수입 감소로 직결된다. 총지종이 부담하는 회비는 연간 300만원. 게다가 최근 회장단 회비 · 후원금을 조정해 협의회 회비수입은 기존 대비 약 1000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협의회 연간 회비수입이 수천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큰 타격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불교계의 미온적인 교류 태도도 지난해 도마에 올라 협의회 차원서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항의로 일본불교계의 태도가 바뀌진 않았다. 결국 회원 탈퇴와 해외교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협의회 대내외적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됐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세간의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과거 알라비칼라에 머물고 있을 때 500여 명의 장자를 이끄는 수장자와의 대화에서 사섭법(四攝法)을 대중지도자의 필수덕목으로 꼽았다. 부처님은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섭법으로 대중을 이끈다면 어떤 대중도 이끌지 못할 대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만큼 보시(布施) · 애어(愛語) · 이행(利行) · 동사(同事) 4가지 가치는 지도자로서 갖춰야할 중요한 실천덕목인 셈이다. 따라서 대중이 모인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 단체의 지도부에 있다. 부디 한일 양국불교계 선린을 위해 40년 넘도록 매진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사소한 문제들로 좌초되지 않도록 지도부의 지혜를 모아내길 바란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봄에는 정목스님 #바쁜일상 #내인생필템
정목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목 09:00, 14:00 / 토 16:00 / 월 23: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오시는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NEPAL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쉬라바스티 룸비니 상카시아 쿠시나가르 바이샬리 라지기르 차르타트 부다가야
밍글라바 인연이 닿아야 갈수 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 나라
미얀마 에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코스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코스
3대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코스
양곤-바간-헤호 3박5일
히말라야 고요한 왕국 부탄 성지순례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성지순례 4박6일
파로-팀푸-푸나카-따쉬
출발일 6월17일/22일/27일 7월2일/7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하늘과 맞닿은 성지 티베트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칭짱열차"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초-장체-시가체
라싸-칭짱열차-서안-인 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
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 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밑반찬 전달을 끝낸 봉사자들이 다시 봉은사 공양간에 모였다. 활짝 웃는 얼굴마다 신심과 자비심이 넘쳐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하얀 용기마다 각양 각색의 자비 반찬이 담겨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독거 어르신 밑반찬 만들며 영그는 信心

道伴의 향기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작은 보시가 큰 자비로

2000년 첫 결성, 밑반찬 보시

강남 기초생활 25가구에 전달

이른 아침 공양간 모여

"받는 분 생각하면 쉴 틈 없어"

신행모임이 봉사모임으로

6년 전각봉사하며 도반으로

성지순례도 하며 친목 도모

"마음 맞으니 힘든 줄 모르고

봉사 자체가 즐겁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월 3일 오전 9시. 용인에 거주하는 혜안 보살은 집을 나선다. 여느 주부같으면 가족들이 출근하고 아침드라마를 볼 시간, 혜안 보살의 손에는 먹을 거리가 가득 들려 있다. 혜안 보살이 2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奉恩寺)다.

8명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은 혜안 보살이 속한 곳. 이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도, 비가오고 눈이와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독거어르신들의 밑반찬 배달을 위해 집을 나선다.

2000년 봉은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은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반찬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동무도 돼 준다.

"수지에서 오는 분도 있고, 다들 먼 곳에서 오셔요. 하지만 항상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찰에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공양간은 이내 분주함 속으로 빠져든다. 김치를 비롯해 우엉, 가지볶음 등 음식이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진공 포장된다. 또 다른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다.

초창기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은 직접 음식 재료를 준비해 봉은사 공양간에서 조리, 이를 전달해왔다. 당번을 맡은 봉사자들이 매주 월요일 가락시장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봤다. 어르신들에게 채소 반찬만 해 드릴 수 없어 사찰에서 육류 반찬을 조리하는 애로점도 있었다. 이런 사정에 봉은사의 한 봉사자가 반찬 준비를 도와줘 이제는 포장과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나물만 들어 있는 사찰음식 그대로 배달하니 어르신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다. 지금은 국과 함께 다양한 조합으로 이뤄진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

보현행 연등장은 "3~4가지씩 준비를 해서 하나씩 포장을 다 한다. 진공포장으로 해서 3일은 놔둬도 드실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공포장을 하는 기계에서 밑반찬을 담은 하얀 용기가 나오자 이를 든 회원들의 걸음이 빨라진다. 점심 시간이 지나기 전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이 봉은사 인근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강남구 전역에 계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 서둘러야지요. 길이 밀려요. 하하"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이 전달하는 지역은 강남구에 퍼져있다. 이런 관계로 2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사중에서 1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1대는 대각 한경만 포교사의 차가 사용된다. 올해로 67세인 한 포교사는 1달 전 이들 모임에 참여했다.

한 포교사는 "군법당 봉사활동을 하다, 지인의 소개로 봉은사 밑반찬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어쩌다 보니 청일점이 됐는데, 오히려 보살님들 마음씨가 좋아서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 포교사가 "차가 작아서 골목길 요리조리 가는데는 딱"이라고 하자 함께 있던 보살들이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이들은 걸음을 바삐 재촉했다. 일주문을 지난 차량은 반찬을 담은 하얀 용기 50여개를 싣고 구불구불한 삼성동 일대 주택가를 가로질렀다. 운전하는 한 포교사 옆에는 보현행 연등장과 법향심 보살이 이날 들러야 할 집 16곳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남 하면 의례 부자동네로 알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도 상당수 있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나자 좁은 골목길이 나왔다. 도로 끝에 차가 멈춰서자 이들은 허름한 한 빌라의 지하로 내려갔다. 휠체어가 문 앞에 놓인 집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대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우렁차다. 저 멀리 쇼파에서 누운 한 어르신이 힘겹게 "고마워요"라고 화답했다.

"예전에는 밖에 반찬을 놓고 오기도 했어요. 밑반찬 봉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다른 분들이 사는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일까. 일부러 휠체어에 놓고가라고 문 앞에 세워두시기도 하시더라구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 전달을 합니다. 자주보니 저도 좋더라구요."

법향심 보살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법향심 보살은 이어 "아침부터 나와서 배달하는 것이라 마지막 집에 가는 길에는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을 보면 피곤이 날라간다"며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반찬을 건네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착한 한 집에서는 "도시락 왔어요"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열렸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항상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셔요?"

"왜 문 앞에 계시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자주보니 딸 같아서 그렇지"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다리가 불편해 걸을 수 없는 이 할머니는 이들이 전해주는 반찬과 밥이 하루를 해결하는 유일한 끼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해요. 저희를 기다리는 분과의 약속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는 건 궂은 날씨도 밑반찬 배달 시간만큼은 피해 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항상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보현행 보살은 살갑게 인사를 건넨 뒤 밑반찬을 들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봉은사 전각 봉사하며 모임 구성

사실 이들은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의 새로운 회원이다. 10년 전부터 하던 봉사자들은 2017년 회향한 상황. 봉은사 전각봉사를 오랫동안 이어온 이들이 사찰에서의 봉사활동을 사회에서도 펼치고자 하는 마음에 다시 뭉쳤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여래선과 조사선

B5
문화
'양산의 사찰벽화' 展

B6
학술 · 문화재
백용성 총서 전산화 사업 회향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는?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은 2000년 9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강남구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봉은사 신행단체로 활동하다 2010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의 밑반찬배달사업의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행보는 연간 104일에 달한다. 밑반찬 봉사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독거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기본생계와 안부 확인 등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은 보현행 연등장(사진 뒷열 왼쪽 두번째)과의 인연으로 모였다. 모임 초기지만 원력만큼은 뜨겁다.



반찬을 진공포장하는 봉사자들



2017년 포교대상 원력상을 받았다.

노력봉사가 수행…"어르신 보길 부처님 같이"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B1면에서 계속

이들은 6년간의 전각봉사 후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분기별 여행도 함께 가는 등 모임을 구성했다.

사찰에서 봉사하는 것과 외부에서 봉사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옆에 있던 각성행 보살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강남구에서 반찬 봉사를 한다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강남구에 반찬이 필요한 분들이 있나 하고요. 저도 이런 분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세요. 절 안에서만 있었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지요."

오랜 기간 함께 신행활동을 해왔기에 이들의 궁합은 찰떡이다. '영미' 를 중심으로 컬링 국가대표팀이 모였듯, 보현행 연등장을 중심으로 모두 모였다. 한명씩 한명씩 해보자고 꼬득여 결국 팀을 이뤘다.

"저희는 봉은사 내 법당 도반이에요. 6년 넘게 봉사를 하다 1년을 함께 쉬었지요. 오히려 지금은 저보다 여기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마음이 흔들려도, 저희 도반들이 더 많은 마음을 내서 제가 그 힘으로 여기 앉아있습니다."

법향심 총무는 "먼저 계시던 봉사자분들 중에 전각부 연등장이 있었고, 일부 봉사자들도 전각부 일을 하셨다. 그 때 밑반찬 봉사 일을 알게 됐다"며 "지금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보살님이 저희 전각부에 있던 분이고, 그 보살님과 또 연관

소외계층 위한 행보 넓힐 계획

바자회서 후원 모집도 고민 중

쌀과 생필품 전달도 필요해

함께 의지하며 지속 봉사

"건강 허락되는 한 노력할 것"

이 되다 보니 봉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전각부 봉사의 인연으로 사중에서 친목모임도 이어가고 있다.

"전각부는 모든 사중행사에 함께 합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새벽 5~6시부터 모이거든요. 다들 열성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회향하고 함께 봉사하자고 하니 마음이 잘 모였습니다. 그동안 목욕봉사 등도 진행했어요. 봉사활동도 중독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면 보람도 느끼고 제 삶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각성행 보살은 "봉사를 하면서 기도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다"며 "어쨌든 봉사를 하러 오면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가니, 봉사 덕분에 또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성행 보살은 "제일 좋은 것은 부처님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자비 전할 터

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각성행 보살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봉사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봉사활동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알려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각성행 보살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다. 결혼 하며 불자인 남편을 따라 사찰에 나오게 됐다. 탑골공원 원각사서 무료배식봉사 등 자비보시행을 이어왔다. 각성행 보살은 "사찰에서 마음이나 몸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며 "봉은사 봉사모임이 다른 곳 보다 좋은 점은 신행모임이 기반이 되다보니 서로 마음이 잘 모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반끼리 기도도, 도반끼리 봉사도 하니 좋습니다. 1년이 즐거워요.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족들이 더 응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반찬 배달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될 이들의 계획은 더 많은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해주는 것이다.

보현행 연등장은 "지금도 더 많은 음식을 더 많은 노인께 전해드리고 싶지만 봉사할 분들이 없어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찬 배달 봉사가 끝나도 아직 건강하니 몸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파일 때 바자회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쌀도 나가고, 미역 한줄기라도 나갈 수 있게 해야지요. 호호호. 후원을 받아 어디에 써야겠다 하는 요란한 각오는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 되는 한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하겠어요. 우왕좌왕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 정착이 되면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다들 워낙 심성이 좋은 분들이라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만나는 분들을 모두 부처님라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할 것이에요"라고 입을 모았다.

봉은사를 나서는 길, 활짝 핀 철쭉과 벚꽃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봉사자들의 밑반찬을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또다른 꽃이 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다. 한편, 봉은사는 밑반찬 배달봉사를 비롯해 불자들의 다양한 노력봉사를 기다리고 있다. 관심있는 이는 봉은사 사회국(02-3218-4836)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과정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믿어라

법회에서 활용하는 인성교육

공생,공심으로 생활속에서 수행하기

일 정 : 2018년 6월 8일 (金) ~ 10 일 (日)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 (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edu.hansi.org

▶ 고정관념을 깨다! - 마음의 주인 되기
▶ 지혜를 계발하다! - 마음은 무한 에너지
▶ 자비심을 키우다! - 우리는 생명 공동체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중국禪 뿌리는 ‘여래선’”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⑦ 여래선과 조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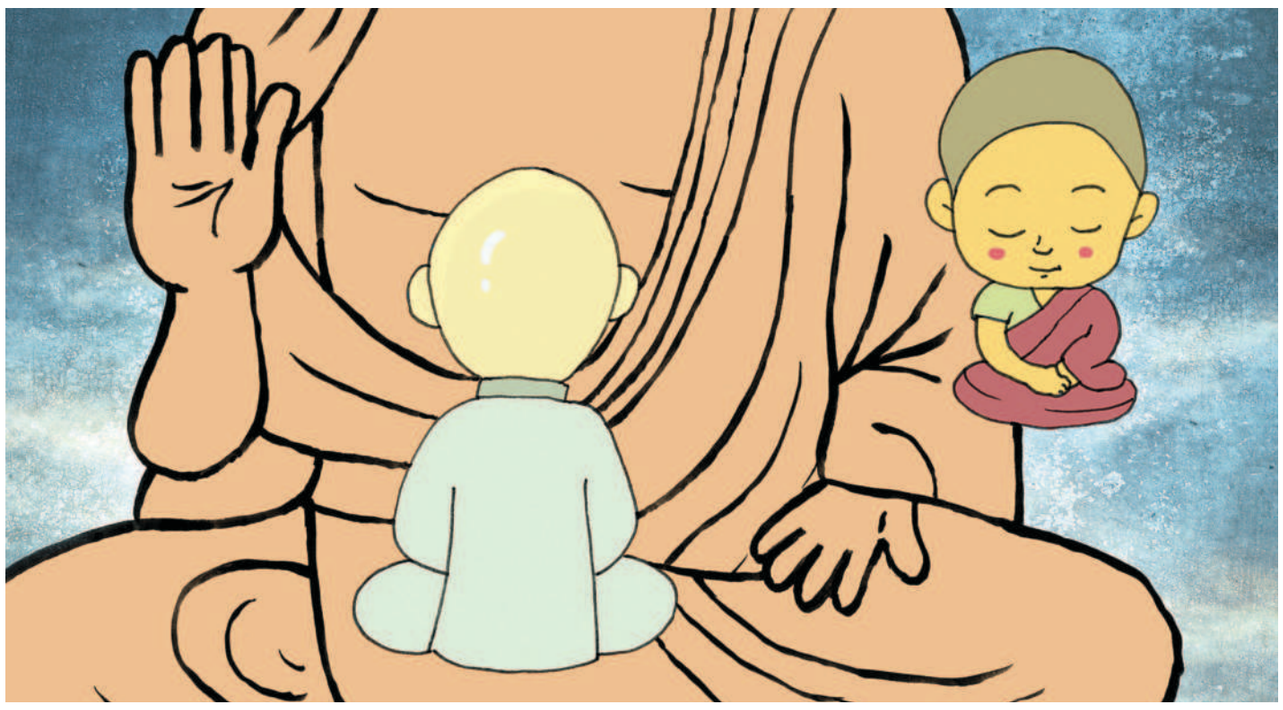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중국 선종사에서 육조혜능선사(638-713)의 출현은 선종의 중국화 내지 탈 인도선법의 요인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특히 혜능 스님의 출현은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자리전환 혹은 위치전환의 분기점이라고도 한다. 또 〈능가경〉은 신수 계통의 선법과 연관을 짓고(점수-북종), 〈금강경〉은 혜능 계통의 선법과 연관을 짓는(돈오-남종)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다. 그만큼 혜능 스님 이후 선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중국 선종이 선법의 우열을 논하는 표준을 삼을 때 크게 여래선과 조사선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조사선을 우위에 두는 액션을 취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중국선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여래선 즉 부처님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점을 부정한다면, 곧 불법에 대한 부정이다. 다만 이 수행법의 차이점은 수행상의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열의 차이점도 아니다. 오직 근기를 수순하면서 그 시대의 환경과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중국선종이라는 거대한 산이 형성되기 전에, 당시 승조(僧稠)계통의 선법이 북방지역에서 널리 유행을 하고 있었고, 후세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 및 혜가도 또한 숭산 일대에서 선법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선법은 독립적인 계통의 선법으로 ‘능가사선(楞伽師禪)’이라고 칭했다. 능가사선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북방선(승조 현고 등의 관선)의 선사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선종은 중국적인 요소가 매우 짙은 종파로서, 인도불교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융화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적 체계와 수행실천체계를 완성시킨 종파이다. 인도불교 초기선법의 실천수행면의 각도에서 보면 일찍이 바라문교 등 외도들의 선법을 일정부분 받아드렸고, 역시 불교만의 독특한 수행법을 수립했다. 특히 인도선학의 발전과정과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소승 선수학(禪數學 · 수식관), 대승삼매 및 밀교의 진언선(眞言禪 · 밀주)등으로 구성되어진 선법이다. 소승선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시기로부터 부파불교 시기의 몇몇 부파 및 대승불교가 흥기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선법의 중요한 특성은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인 수행을 하는 것으로, 최고의 경지는 아라한과에 이르는 것이다. 대승삼매(이 내용은 앞전에 자세하게 언급했다)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이 선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역시 최고의 경지는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다. 밀교의 선은 인도불교와 융합된 선법으로 밀주(眞言), 수지밀인(受持密印 · 결인 혹은 수인)을 내용으로 하며 역시 성불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종류의 선법들이 중국에 유입되어서 풍부한 중국선법의 밑거름이 되었다.

처음에 전해진 인도선법은 대부분 사람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인도선법은 비교적 번다한 관심선법으로 종류도 다양했다.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은 비교적 직관을 중시하는 사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인도불교의 전통은 깊은 산속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선법을 닦고, 걸식을 위주로 수행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행풍토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법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수행방식도 여러 가지로 개조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을 버린 것은 아니었고, 인도불교의 기본적인 선법의 바탕위에서 새롭게 건립했다. 사실 달마대사도 처음에는 두타고행(頭陀苦行)을 봉행하기도 했으며, 2조혜가(487~593), 3조인 승찬(510~606)도 역시 두타행을 실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4조 도신(580~651)도 처음에는 두타행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일정한 주거를 정해서(도량을 세움) 수행하기 시작 하였으며, 5조 홍인(601~675)때에 이르러서 도신이 건립한 도량을 재정비하는 한편 대중이 모여서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면서, 더욱더 선농병중(禪農幷重)을 공고히 하였다. 즉 5조홍인대에 이르러서 서서히 밖으로는 인도선법의 주거 풍토 내지 두타행등의 풍토를 완전하게 벗어나고, 안으로는 인도선의 번다한 선법의 이론 및 종교의식 등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중국선의 독특한 가풍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이기도 한다. 그 후에 다시 마조대사가 총림을 건설하였고, 백장회해는 백장청규를 제정하면서,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는 선림의 독특한 계율의 풍토를 조성하면서 철저하게 인도불교의 전통을 개조한 진정한 중국선인 조사선의 가풍이 완성되었다.

인도불교 흡수 융화한 중국선종
5조홍인 이후 조사선 정립 정착
혜능…탈 인도선법, 선종의 중국화
수행법 우열 논쟁은 佛法 몰이해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종의 창립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져서 중국의 현실에 맞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진 종파로서, 중국 전통사상과도 상호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왔다. 위진 남북조시기의 불교는 반야학이 유행을 했고, 특히 당시 남방에서는 중국 전통사상인 현학(玄學)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사상은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 시기의 후반부에 중국에 〈열반경〉이 소개 되면서 불성론이 유행하기 시작 하였고, 수당에 이르러서는 반야사상과 불성사상이 결합되어진 심성론(心性論)이 출현하게 된다.(심성론은 화엄, 천태, 선종이 모두 중시하는 사상이다) 반야공성은 반야부 계통의 〈금강경〉을 바탕으로 하며, 불성여래장의 사상은 〈능가경〉 및 〈열반경〉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진 사상적 체계이다. 〈단경〉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잘 배합되어져 나타난다.

선종은 기타 종파에 비해 중국화의 표본이 잘 나타난 종파로서, 중국 사람들은 선종을 중국인들이 창조한 민족화된 종파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중국인들은 선종이라는 종파가 아무리 특수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은 인도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국의 전체적인 선종의 흐름이 ‘돈오(頓悟 · 조사선)’를 제창했지만, 모든 선사들이 무조건적으로 인도불교의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수행법인 ‘점수(漸修 · 여래선)’를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보리달마가 처음부터 돈오를 말하거나 점수를 말한 것은 아니다. ‘조사선’, ‘여래선’을 말한 적도 없다. 돈오와 점수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사선 여래선이라는 단어가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돈오와 점수의 분기점을 신수와 혜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사실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고 신수 계통을 점수라고 폄하한 인물은 바로 혜능의 제자인 하택신회가 시작이라고 한다. 이 관점은 중국 유명한 근대학자인 호적 선생의 관점이며, 대부분 찬성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물론 일본의 몇몇 유명한 학자와 그 외 학자들은 이 입장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호적 선생의 이론을 확실하게 반박하거나 뒤집은 사람은 없다. 호적 선생의 관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하택신회를 지해종자(知解種子)로 폄하하면서, 혜능의 우수성은 돈오돈수를 주장한데 있다고 여겼다.

중국의 8대 종파는 두 가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형식 체계 등이 매우 중국화 된 불교종파이다. 반드시 창시자가 있고, 소유경전이 있고, 그 법맥을 계승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중국인들의 사유 방법 내지 그들의 관습이 만들어낸 하나의 틀이다. 다른 하나는 이론과 실천수행을 체계화 한 것이다. 즉 전자가 밖으로 불교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포장을 했다고 한다면, 후자는 안으로 경전의 사상적 체계 및 실천수행의 체계를 정리하고 정립하는 작업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종은 특히 중국화 된 종파로서, 위의 두 가지의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선종을 기타 종파와 비교 분석해보면, 결정된 소위경전도 이론적 체계도 명확하게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즉 기타 종파에 비해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 매우 활발발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임기응변이 강하면서 생명력이 풍부한 면이 있다. 물론 선종 내부 종파에서 소위경전이 아닌, 나름대로의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파도 있다. 예를 들면 석두종은 화엄사상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홍주종은 노장사상에 가깝다고 하기도 한다. 즉 각종파 선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선법의 특성이 드러난다.

인도선법의 이론과 개오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수행방식을 고수한다. 즉 ‘심성본적(心性本寂)’이라 해서 사람들의 자성 혹은 마음의 근본이 항상 적정(寂靜)한데, 다만 세속의 각종 번뇌의 장애를 받아서 드러나지 못하고,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번뇌를 벗어나고 자기의 본심인 적정한 상태로 회귀한다고 주장한다. 장차 이 수행법은 홍인의 제자인 신수 계통(북방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점수(漸修)’법이라고 하고, 홍인의 또 다른 제자인 혜능 계통(남방선)은 반대로 이러한 단계적 수행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람의 본성, 본심이 청정하다면, 이러한 상태의 본성 본심을 인식해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바로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여래지(如來地 · 성불)이며, 돈오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심성본정심성본각(心性本淨 心性本覺)’, 원래 성불의 각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이 이 각성을 발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로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중국 선종의 트레이드마크인 ‘명심견성(明心見性)’이다. 그런데 돈오법은 중국인들의 전통사유방식과 많이 닮아있다. 점수와 돈오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점수의 장점이 습기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면, 돈오의 장점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불한다는 것으로, 즉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 한 번에 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것)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두 가지의 함축된 의미이다. 하나는 돈오수행법은 아주 근기가 수승한(아주 정신세계의 수준이 뛰어난 사람)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이라는 것과, 일반인에게 돈오수행법을 적용시켰을 때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돈오해서 인지하고 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습기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순을 낳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선종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돈오법과 점수법은 곧 남방선과 북방선의 분기점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인도선 중국선의 차이점이 녹아 있기도 하다. 대체로 돈오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방선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수행은 각각의 사람의 수준에 맞게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법에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동국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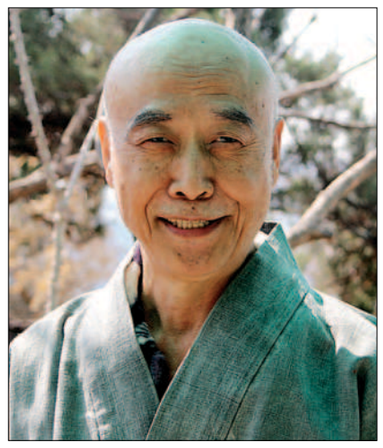
“사람속 부처 밖으로 나와야 세상 밝아져”



번뇌를 끊는 이야기
–간화선看話禪의 길

석현웅 지음
운주사 펴냄
25,0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미국 등서 20년간 서양인에게 선 알려
2005년 귀국후 육조사 도량 열고 간화선 지도
저자의 수행 경험 및 방법 등 명료히 밝혀

이 책은 〈묻지 않는 질문〉 이후, 12년 만에 책으로 만나는 서울 육조사 현웅 스님〈오른쪽 사진〉의 사자후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 저술에는 그동안 스님이 대중과 소통하며 대중을 이끈 공부길과, 출가 후 50여 년 동안 수행하며 깨달은 견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문장은 마치 옛 선사들을 지금 옆에서 친견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이 들게 한다.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음이 무엇이고 왜 간화선을 닦아야 하는지 등을 명료히 밝혀 놓고 있다.

현웅 스님은 유럽과 미국서 2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선을 가르치다 귀국해 2005년 서울에 들어와 성북구 돈암동에 육조사 도량을 열고 간화선을 지도한다. 그가 수행하는 육조사는 흔히 말하는 재를 지내거나 기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육조사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 귀한 존재”라고 간판에 새겨진 표어가 먼저 그것을 말해 준다.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살아나 그 부처가 밖으로 나와야 불교가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자기인 사람, 이 사람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간화선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람 떠나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불교의 중심에 간화선이 있지만, 정작 바른 스승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 저기서 보고 읽고 배워 얻은 지식으로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배기 자신의 견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식을 들려줄 선지식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출가 후 오로지 참선 공부에만 전념한 현웅 스님은 이 책에서 당신의 공부 소식을 온전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행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바른 공부길로 이끄는데, 경전이나 선사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공자나 예수의 가르침까지 종횡으로 넘나들며 방편을 펼친다.

정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스님의 사자후를 읽다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저자의 방황 시절도 말하지만, 마침내 스승을 만나고 그의 방황을 그친 이야기도 함께 실어 눈에 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 삶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방황을 못 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너도 나도 공감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많다. 저자는 종교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모든 종교 속에 있는 진리는 하나로 뚫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이 가려 놓고 여럿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현웅 스님, 그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믿는 사람은 더 가깝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가 멀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부처를 보듬고 살고 있는 존재이다. 다만 배운 불교가 나 안에 있는 부처를 한번 더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옛 사람의 말을 가져와 증명 하듯황벽 선사의 말을 빌린다. “불교를 배우지 말라”고. 다만 자기를 믿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그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주요 메시지이다. 길에 든 사람은 능력이 살아난다. 그게 살아나야 내가 살기가 좋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는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라는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책을 읽는 내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서산대사도 “공부하려고 하면 그르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이미 이 책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교는 알기 전에 믿음을 내야 한다. 내가 부처이고, 내 마음이 부처(佛)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고 들어가면, 분별과 시비가 일어나고, 망념과 망식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시끄럽다. 아는 것, 익힌 것이 마음을 덮어버리고 장애하여,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교는 마음을 보고 믿는 공부다. 자기와 스승, 부처를 믿는 공부다. 모두 하나로 통해 있음을 믿고 깨닫는 공부다. 그래서 우선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서 묘하며, 이 묘한 마음을 궁구하는 것이 참선”이라며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이 간화(看話)이다. 금강경의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여래를 본다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한다.

▲석현웅 스님은

20세에 전남 순천 송광사 구산(九山) 스님 문하로 출가한다. 수행의 기초를 은사이신 구산선사로부터 익힌다. 그리고 여러 해를 제방 선원서 정진한다. 인천 용화사 전강 선사 문하에서 공부길을 간택받고 대중 선방 생활을 뒤로한다. 그리고 깊은 산중 토굴에 들어가 6년간을 홀로 지낸다.

1984년 스위스 제네바 불승사로부터 초청 받아 서양인에게 한국 선불교를 지도하기 시작한다. 86년에는 북미로 건너가 시애틀에 돈오선원과 버클리에 육조사를 창건하고 선원문을 연다. 2005년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 육조사 선원을 열고, 간화선에는 빠져 있는 도(道)의 그릇을 가꾸는 양생법을 더해 선(禪)을 지도한다.

저서로는 〈묻지 않는 질문〉과 이번에 출간한 〈번뇌(煩惱)를 끊는 이야기〉가 있다.

젊은이에게 띄우는 〈마음충전〉 메시지



마음충전

마가스님 지음/숨 펴냄/6900원

오늘 상처입은 젊은 영혼들에게 띄우는 〈마음충전〉의 메시지. 평소 약하고 상처입은 영혼들을 보살피기 위해 관심을 쏟는 저자의 마음충전 프로젝트는 단 하나뿐인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방법, 자신을 아껴주는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이 책 〈마음충전〉에 함께 담았다.

학생,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바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받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안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랑받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아지도 주인이 미워하면 나가서도 미움을 받고, 주인이 사랑해주면 나가서도 사랑받는다고 한다. 오늘 하루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스스로에게 셀프로 토닥토닥 해주면 어떨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리고, 나는 이대로 내가 참 좋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라고 말해보자.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아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자신이 떠나면 슬퍼할 그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 하루 한번 더 힘을 낸다면, 이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간다면 그 하루는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한 쌀밥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 이틀, 한달, 일년, 언젠가 뒤돌아볼 때, 그런 쌀밥같은 기억들이 모여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이다. “현실서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테니”

한편 이 책에 나온 주옥같은 감로법문들은 마가 스님의 〈아침명상〉 카톡메시지 내용중에서 발췌한 것들을 간추린 것이다. 이 카톡 메시지는 현재까지 6년동안 진행중이다.

김주일 기자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 이야기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민족사 펴냄/1만 6천원

글과 법문, 교육, SNS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마음공부와 선(禪)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법상 스님(軍僧, 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용산 호국원광사 주지법사)의 새 책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민족사 펴냄)가 출간되었다.

〈육조단경〉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이며, 조사선(祖師禪)을 실질적으로 창시하여 동아시아에 선의 황금기를 열어준 6조 혜능 스님의 자전적 일대기와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행자들의 지침서로 손꼽히는 〈육조단경〉은 엄밀히 말하면 조사어록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어록 중 유일하게 ‘경(經)’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숭 받는 선불교 최고의 고전(古典)이다.

〈육조단경〉은 5종(덕이본, 돈황본, 종보본, 흥성사본, 대승사본)의 이본(異本)이 있다. 이 책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는 6조 혜능 스님의 생애와 주요법문 등 내용이 풍부하고 문장에 오류가 없어 선불교를 공부하는 데 좋은 판본인 덕이본을 쉽게 번역한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따로 붙이고, 소제목을 기본 단위로 해설을 자세하게 붙여 놓았다.

기존에 출간된 〈육조단경〉 번역 · 해설서들이 대부분 어려운 한문과 불교용어에 갇혀 있어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들조차 읽어내기 힘겹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그에 비해 이 책은 법상 스님 특유의 쉽고 편안하면서도 선기(禪機) 넘치는 필체로 공들여 번역하고 해설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한글세대들도 한 줄 한 줄 술술 읽으면서 깊이 공감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마음공부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법상 스님은 지난한 수행과 공부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은 요원하기만 하다면,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바로 그 답을 〈육조단경〉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수많은 참고서에서 헤매느라 참뜻을 모른다면 본래의 교과서로 돌아가야 하듯, 선(禪)의 교과서와도 같은 〈육조단경〉이라는 근원의 텍스트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고 역설한다. 스님 역시 〈육조단경〉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빼곡한 서재의 책을 군법당에 기증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김주일 기자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양산 지역 사찰벽화 한 자리에

'양산의 사찰벽화' 展
통도사성보박물관 · 양산시립박물관 4월 10일~6월 10일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 등
벽화 모사본 등 200여 점 전시
양산 불교문화 우수성 홍포 기회
'사찰벽화 연구' 학술대회 개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양산지역 사찰벽화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 지준)은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과 공동으로 4월 10일(화)부터 6월 10일(일)까지 '양산의 사찰벽화' 展을 개최한다.

통도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양산시립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통도사와 신흥사 등 양산 지역의 전통사찰에 그려진 대형 벽화 모사본과 관련 자료들을 선보이며, 양산시립박물관에서는 소규모 벽화와 모사본, 관련 유물, 영상 등이 전시된다.

양산 지역은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보고라고 불리는 통도사를 비롯해 많은 전통사찰이 모여 있는 유서 깊은 불교의 고장으로, 통도사와 신흥사 등에 수많은 전설과 다수의 보물급 불교문화재가 남아있다. 특히 불교 경전과 교리의 내용을 그림으로 남긴 사찰벽화와 다양한 불교문화가 남아있다.

사찰벽화는 전각 내외 벽면과 여러 부재에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그린 그림으로, 양산에는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보물 제1711호)와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물 제1757호) 등 보물급 벽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벽화들이 남아있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 중 '견보탑품도'는 거대한 보탑 안에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병좌의 모습을 표현한 벽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을 펼칠 때, 다보여래의 보탑이 땅에서 솟아 그 설법에 대해 감탄하니 석가모니부처님이 탑 안으로 들어가 다보여래와 같이 앉았다는 〈묘법연화경〉 중 '견보탑품'의 내용을 형상화한 벽화다.

신흥사는 대광전이 있어 빛난다. 대광전 내 · 외벽에는 80여 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대부분은 내벽에 있는데, 남벽과 북벽, 동서벽의 상부포벽, 후불벽 등에 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도상과 형상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남벽의 '아미타삼존도'는 17세기 후반의 귀중한 사례로 꼽힌다.

총 20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양산지역 불교문화에 대한 우수성과 학술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지준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사찰벽화를 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양산에 있는 훌륭한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 문화재의 훼손을 막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모색해야 한다." 며 많은 관람과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4월 14일(토) 양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이번 전시와 연계한 제31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가 열린다.

민화 학자인 경주대학교 정병모 교수가 기조강연으로 ▲'사찰벽화의 다양성과, 민화의 보고'를 발표하고, ▲통도사 관음전의 조영과 관음보살벽화 : 김미경(문화재청) ▲통도사 대광명전 내벽(內壁)의 신선도(神仙圖) : 장준구(이천시립월전미술관) ▲벽화에 사용된 녹색안료의 채색 특징 비교 : 김민(국민대학교 김민 겸임 교수) ▲한국 사찰벽화 보존현황 및 보존관리 방안 : 이경민(국립문화재연구소)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범어 빨리어 그리고 인도 문자예술 서예' 展

인도박물관 4월7일~5월 3일

인도박물관(관장 김양식)은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도웅 스님의 '범어 빨리어 그리고 인도의 문자예술 서예'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도의 문자전으로 범어를 중심으로 빨리어, 데바나가리 등 다양한 인도의 문자를 서예의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인도 정신문화의 핵심인 베다와 바가와드기따, 힌두교 신들에 대한 찬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교의 경전과 다라니, 불보살들에 대한 경배와 논서의 구절이 담겨 있다. 범어 외에 빨리어에 대한 경전도 포함되어 있다.

도웅 스님은 1966년 출가하였으며, 1989년부터 인도 바라나시 Sanskrit 대학에서 수학하며 범어와 인도의 문자예술에 대해 연구했다. 2012년에는 '한국범어연구원'을 설립하여 범어와 인도의 문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에 인도의 문자예술을 살펴보고 불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범어반과 운율(곡조)이 있는 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범어노래반을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도의 문자와 범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2-585-2185.

박재완 기자

사진과 詩로 여는 명상의 세계

인경 스님 포토 명상시 '순례자의 은빛나무' 展
법련사 불일미술관 4월 16일~25일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이자 목우선원장인 인경 스님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순례자의 은빛나무-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의 초대' 展을 개최한다.

그동안 불교명상과 심리학을 융합한 명상심리치료가 현대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진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명상'의 저변을 확장해온 인경 스님이 사진과 명상시라는 또 다른 언어로 새로운 명상의 세계를 선보인다. 스님은 다양한 풍경 속에서 직관적으로 포착해낸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유의 스펙트럼을 문자로 옮긴, 명상시 70여 점을 선보임으로써 다시 한 번 '명상'을 확장시킨다.

"꽃이여, / 텅 빈 종이 위에서 / 이름은 단지 흔적일 뿐, / 너의 영혼이 아니다.// 새 발자국 소리도 / 들리지 않는 깊은 안개 속, / 푸른 빛 기억속의 잎사귀들 뒤척이며 / 감각의 몸 느낌을 따라 줄기 줄기마다 / 실핏줄의 작은 날개 퍼덕거리며// 이제 누각의 옛길을 따라 / 가랑비 쏟아지는 코끝 면전에서 / 달빛으로 피어나는 너는 / 너는 누구냐."

글은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인경 스님의 명상시 '너는 누구냐'이다. 글은 춤을 추는 듯한 백련의 모습(사진)에서 왔다.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 알아듣는 순간, 그 순간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 스님의 카메라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직관이 주는 언어를 받아 적는다. 길에서 만난 백련은 또 다른 언어로 다가온다. 백련이 말하는 것인지, 백련을 바라보는 마음이 짓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은 사진과 시라는 언어로 바뀌어 한 장의 경관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경관들이 모여 한 권의 경전이 되었다. 인경 스님의 '순례자의 은빛나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사진과 명상시는 책으로도 나온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이 산과 저산을,/ 이 도시와 저 도시를 떠돌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일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구하면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수하고 맑고 자연스런/ 세상에 없는 다섯 번째 계절,/ 일상의 자기를 초월하여 스스로의 본성이/ 온통 그대로 드러낸/ 반복된 순환이 잠깐 멈추는 결정적 그 순간/ 순례의 길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에 없는 다섯 번째 계절, 이번 전시는 그 다섯 번째 계절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전시회 포스터 이미지 사진(대관령 양떼 목장)

인경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간화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이며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명상상담연구원의 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 〈화엄교학과 간화선의 만남〉 등의 저술과 번역서로 〈위빠사나 명상,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수용전념치료 임상가이드〉, 〈심리치료와 불교〉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용문사 '천년~ 문화제'

14일 본공연, 10월까지

용문사(주지 보인)는 4월 14일(토) 경내에서 '호국사찰 용문사 천년은행나무 문화제-천년의 향기를 나누다'를 개최한다. 문화재청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4일 본공연 '양평군민과 함께하는 젊은 희망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사진&UCC 강좌(10회) ▲문화유산 바로알기 물소리길 체험 강좌(7월) ▲천년은행나무 전통의식 체험, 천년은행나무 소원지 쓰기(4월~10월) 등 10월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본공연에는 가수 민해경, 편승엽, 국악인 전영랑, 비보이 MB크루와 전자바이올린 연주다 제니유가 출연한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사진&UCC 강좌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장상, 용문사 주지상 등이 수여된다. 박재완 기자


수법장엄일체
미단 달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근현대 선지식 선양, 새 길 열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 보고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근현대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모든 저서와 자료를 망라하는 불사가 5년 만에 회향했다.

(재)조계종대각회(이사장 혜총)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각회가 진행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던 대작 불사다. 조사와 연구·개발 등은 대각사상연구원이 주도하고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협력했다.

지난 5년 동안 대각사상연구원 등은 기존 자료 분석과 새로운 자료 수집, 현대어 번역, 총서 발간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백용성 스님의 기고문·서간문 등이 새로 발굴됐다. 5건의 근대문화재 지정이 이뤄진 것도 성과다.

대각회와 대각사상연구원 등은 새로 발굴된 자료와 기존 자료들을 망라해 지난해 총 20권 분량의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발간했다. 총서에는 백용성 스님의 저서와 신발굴자료, 현대어 해석, 영인본까지 수록됐다.

총서 발간 이후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개된 것은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이다. PC와 모바일 버전이 모두 구축됐으며, 웹에 접속 않고도 디지털 총서를 이용할 수 있는 E-Book도 개발돼 공개됐다.

이 같은 총서 전산화 사업은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선양과 문헌 집성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 단체와 학술 연구기관이 협력해 자료를 수집해 이를 현대어로 번역해 총서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종단 주요 스님들도 이 같은 성과에 공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종단에서도 선지식의 사상을 현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각회의 이번 총서 전산화는 향후 선지식 선양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총장이자 대각사상연구원장인 보광 스님은 “총서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수많은 워크숍과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는 인문학과 디지털이 융합한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도 “백용성 스님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지식이지만 제대로 된 자료집이 없었다. 이번 총서와 전산화로 스님 사상의 일면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백용성 스님의 사상이 조계종단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4월 5일 열린 보고회에서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백용성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 PC버전(사진 왼쪽)과 모바일 버전(사진 오른쪽)의 메인 화면. 백용성 총서를 디지털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대각회·대각사상硏 5년 불사
총서·아카이브·모바일로 회향
백용성 스님 모든 자료 망라
“용성 사상 구현, 노력 할 것”

문화재 · 학술 Focus

백제 문화권 문화재 전시 공간 마련된다

5일 국립익산박물관 기공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를 비롯해 익산 지역 백제 문화유산들을 전시·보존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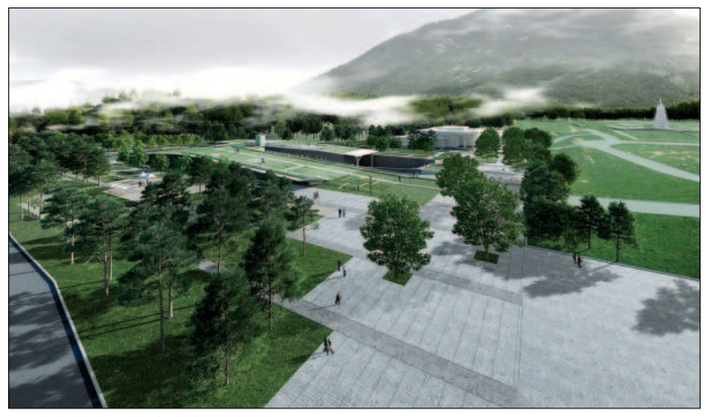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4월 5일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서 국립익산박물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준공 및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물관은 연면적 7,500㎡의 지하2층, 지상1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과 수장고, 사무동 외에 뮤지엄샵, 카페 등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367억 원이며, 내년부터는 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개축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미륵사지와 인근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오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3호), 금동향로,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등이 전시·보존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익산박물관이 완공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전시관 조감도.

출가 절벽시대 돌파할 대책은?

한국선학회·월정사·법보신문 13일 학술대회

출가 감소를 넘어 출가 절벽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월정사와 한국선학회, 법보신문은 4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절벽시대의 한국불교,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 지역별 출가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출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의 ‘인도 출가문화와 불교’ △장미란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동아시아의 출가와 한국불교적 특징’ △이원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한암·탄허의 출가행과 오대산의 교육전통’ △원주불교대학장 해운스님의 ‘월정사 출가학교의 개요 및 성격’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조계종 개혁종단의 이념정체성과 승가교육의 정향’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조계종의 출가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4차 산업시대의 한국불교 출가문제와 미래적 대안’이 발표된다.

주최 측은 “면면히 이어져 온 불교의 전승 과정에는 출가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출가 철벽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대중의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월정사 출가학교 15주년과 법보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신성민 기자

아비달마시대 불제자 진면목 만나다

주목! 학술서

김영석 역주 〈아비달마부파의 성립과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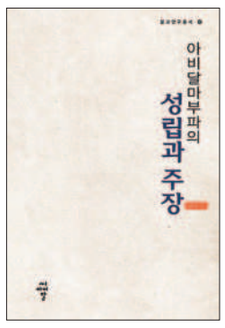
아비달마(abhidharma, 阿毘達磨)는 ‘~에 대해’의 의미를 갖는 ‘abhi’와 ‘법(法)’의 의미를 갖는 ‘dharma’의 복합어로서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가르키는 대표 용어다.

아비달마 불교는 붓다 입멸 이후 18부파와 20부파로 분열된 성문제자들이 붓다의 말씀을 정리하고 해석해 수많은 문헌을 지었던 사조(思潮)이다. 당시 논사들이 이룬 철학적 사유와 부파 간 치열하게 주고받은 논쟁의 결과물로서 많은 문헌들이 찬술됐는데, 이를 ‘아비달마 논장’이라 한다.

김영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역주한 〈아비달마부파의 성립과 주장〉은 불교 역사상 가장 활발한 논쟁이 펼쳐졌던 아비달마불교시대 불제자들의 진면목을 다룬다.

당시의 역동적인 불교의 모습을 오늘날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많은 부파의 성립배경은 물론 그들이 쌓아놓은 사유의 결과물도 후대 다른 부파의 문헌들에서 조금 발견될 뿐이다. 그나마 와수미뜨라, 바브야, 위니따데바가 각각 저술한 아비달마 해설서 3종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자가 책의 제목을 ‘아비달마부파의 성립과 주장’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3종 해설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들 해설서는 내용의 광략(廣略)이나 구성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아비달마불교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부파들이 어떻게 분열돼 성립했고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한 문헌들”이라며 “설일체유부나 남방상좌부를 제외한 다른 부파들의 위상과 주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사상적 맹아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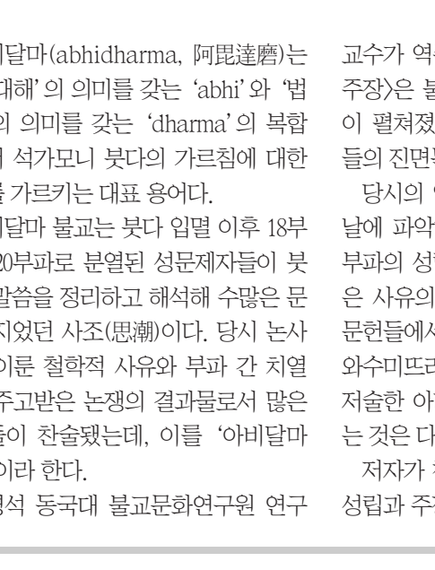
책을 살펴보면 제1편에서는 기본적 해제와 함께 관련정보를 정리했다. 3종 해설서가 갖는 위상과 가치를 비롯해 저자 정보와 핵심 내용, 제부파들의 연원과 분열 양상 등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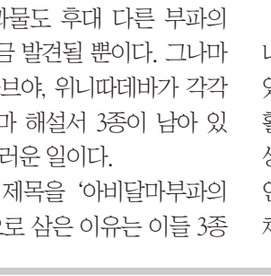
제2편에서 본격적인 3종 해설서에 대한 교감·역주가 이뤄진다. 3종 해설서는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쓰였지만 번역본만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본으로 삼아 비판교정본(critical edition)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부파의 주장별로 그 의미와 더불어 3종 해설서 간의 관련 정보 등을 각주에 밝혀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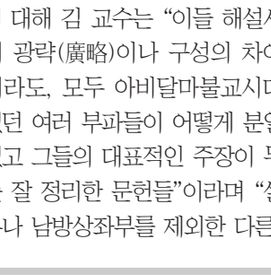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⑦ 스님 사형수 차순석

"사형 집행되면 소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비록 죄를 짓고 수감된 재소자들이지만, 그 뼈아픈 인연에도 들어주어야 할 이유와 사연들이 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본 사람도 없었다. 사형수 차순석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가한 최초의 사형수였다.

1989년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수 차순석(당시 31세) 씨를 처음 만났다. 어느 날, 사형수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98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사형수가 된 차 씨였다.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책을 읽고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비슷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했다. '스님, 제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라는 구절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죄목은 '미성년자 유괴 및 살해' 였다. 1987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죄목의 '미성년자' 는 차 씨 처남의 아들이었다. 그가 그토록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은 아내와의 불화에서 시작됐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양동마을. 차순석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의령군의 4H클럽 회장과 청년회장, 새마을 지도자를 몇 년 씩 맡아 할 정도로 모범적인 청년이자 농군이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합천 태생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다. 친정이 부산이었던 그의 아내는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었다.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아내는 하루하루 불평이 쌓여갔다. 아내의 불평은 결혼 한지 10년이 지나, 두 딸과 막내아들까지 세 아이를 낳고서도 이어졌다. 점점 더해 갔다. 결국 그는 아내의 뜻에 따라 세 아이들과 함께 도시로 나갔다. 하지만 농사밖에 모르는 그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판의 잡일과 공장 직공뿐이었다. 이번엔 차 씨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몇 달 만에 아내를 설득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내의 도시생활에 대한 미련은 여전했다.

한창 바쁜 농번기였다. 그의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떼어놓고 친정 부산에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섰다. 이틀만 다녀오겠다던 그의 아내는 일주일 만에 돌아와 당장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 너무나 화가 난 차 씨는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 그의 아내는 퉁퉁 부운 얼굴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젖먹이 아들이 울기 시작했다. 차 씨는 기가 막혔다. 며칠 뒤, 그의 처남들이 그를 찾아왔다. 평소에도 차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처남들이었다. 그의 아내는 행방불명 상태였다. 폭행을 당하고 친정으로 내려온 여동생이 행방불명까지 되었으니 처남들 역시 이성을 잃고 차 씨를 찾아온 것이다. 차 씨의 아내는 큰 처남집에 있었다. 결국 차 씨는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막내가 매일 울었다. 보름을 넘게 차 씨는 젖동냥을 다녔다. 울다 지친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는 할 수 없이 막내를 업고 아내를 찾아갔다. 그러나 처남집에 도착한 차 씨는 아내를 만나지도 못한 채 문전박대를 당했다.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차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씨는 아이를 업은 채로 술을 들이켰다. 집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는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샌 그는 칼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처남 집으로 향했다. 처남은 없고 아이들만 있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차 씨의 영치금을 받은 김일 씨는 그돈을 다시 차씨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돌려줬다.

최초의 교도소 출가 사형수
초우 스님으로부터 10계, 불명받아
영치금 김일 씨, 불우이웃에 회향
차 씨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와

차 씨가 처남의 아이들을 유괴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끔찍한 짓을 하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똑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처남의 처사가 너무나 괘씸했다. 똑 같은 심정을 느껴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어이없고 끔찍하기 짝이 없는 죽음까지 이어진 것이다.

수감번호 1324. 차순석. 그는 사각의 좁은 감방 안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지장경과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나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불법에 기댔던 그는 1990년 9월 4일, 국내 최초로 교도소에서 출가한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정초우 스님으로부터 10계와 불명(진공)을 받았다. 차 씨는 재소자들에게 설법을 해주며 힘겨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감방청소 등 궂은 일은 항상 앞장서서 했다. 동료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차 씨에게 주기도 했고, 그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차 씨는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모아 불우한 이웃에게 보냈다. 그의 영치금은 당시 병마와 싸우며 일본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던 前 프로레슬러 김일 씨에게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사연을 들은 김일 씨는 그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다. 그 돈은 다시 차 씨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갔다.

1995년 차 씨의 형이 집행됐다. 나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그의 구명운동을 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모까지 나섰지만 결국 차 씨는 죽음으로 죄를 씻어야 했다. 그는 마지막에 "소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생애서 열심히 일하다 죽어서 몸으로 보시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생뿐만 아니라 10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했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10생의 인연을 놓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인연 인연이 간단할 수 없는 일이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⑦ 고등학교 은사님 · 법산스님

고등학교 은사님인 권오희 선생님은 카톨릭 신자이시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당신은 신사임당이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로 아내로 몸과 마음가짐을 현숙하게 가지도록 해 주신 분이다. 내가 또래들과 다르게 성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상담교사인 선생님 곁에서 조교처럼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상담해 주셨던 것을 귀동냥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몸짓을 해야 상대방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으며,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상담이라는 것을 선생님께 배운 것 같다.

법산 스님은 웃음이 법문인 스님이시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자아와 명상' 시간이었다. 만학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학생 신분이기에 수업 시간에 모자 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나는 적잖이 난감했다. 자아와 명상시간이지만 나는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모자를 내려놓아야 할지 계속 쓰고 있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수업이 끝나자 스님 방에 가서 차 한 잔 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순간 나를 풀어 주시려는구나 하는 마음 또한 들었다. 스님께서는 모자 쓴 내 모습이 밝고 단정해서 좋다고 하시며 덕담까지 담아 차 한 잔을 내주셨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 도 모 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